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9+10
SEP + OCT
2025 vol.37



특집
지방소멸 시대,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 사이 지방소멸 시대의 목회자들 : 김정운, 한석봉

청년 일터 이야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문화로 세상 보기 격변의 시대, 교회가 희망이다!!

ISSN 2671-8731

Contents

SEPTEMBER + OCTOBER · 2025

시선

지방 교회, 끝까지 버텨야!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이웃을 살려내는 교회 | 신국원

04

특집

지방소멸 시대,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지방소멸과 교회 소멸 | 김진양

06

지방소멸과 교회 | 양승훈

08

지방소멸, '인구론'을 넘어 | 김반석

10

농촌 교회에서 발견한 소망, 이웃과 함께 살기 | 서지애

12

생존과 부흥을 동시에 꿈꾸는 시골교회 이야기 | 김도형

14

농어촌 교회 인구 감소 그 대안은 무엇일까? | 전정림

16

지방소멸과 농촌 교회의 선교적 응답 | 장성민

18

지방소멸과 교회의 역할 | 허규하

20

소멸을 앞둔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 민찬양

22

사람 사이

지방소멸 시대의 목회자들 : 김정운, 한석봉

24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기독교학문연구회 | 김성원 30



2025. 9+10월호 | 제37호(통권 252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가장 뜨겁게 살아 숨 쉬는, 그런 운동력 홍철민	32
청년 일터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술 김태훈	34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변지영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격변의 시대, 교회가 희망이다!! 추태화	38
미술을 보다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빛나다’ - 문화구조대 서성록	40
책을 보다	
레슬리 뉴비긴이 오늘 우리에게 쓴 서신서 고세일	42
하나님이 궁금한 당신에게 석종준	44

교회 路

창원 성산교회 기독교세계관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회, 학교, 지역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승철	46
소감문 : 창원 어깨동무학교 교사로 섬기며 안태석	47

온전한 지성

헨드릭 반 리센의 기독교 세계관(1) 최용준	48
제9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 콘서트	
God & You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0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지방 교회, 끝까지 버텨야!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농어촌 교회들은 한국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피선교국들과는 달리 한국에는 교회가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은 양적 성과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헌신했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 교파별로 선교지역을 나누어 대도시에서만 아니라 광주, 대구, 원산, 안동, 전주, 정읍 등 지방 도시와 그 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 방방곡곡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에도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을 양성했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화와 빠른 산업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도 한국은 독특한 피선교국이고, 선교정책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산업화가 불일 듯 일어나서 대대적인 인구가동과 도시화가 진행되었을 때 일반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개명되고 진취적이었던 지방 교회의 신자들 상당수가 도시로 이주했고,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대도시의 대형교회 성장과 개척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런 점에서 대도시 교회들은 물론,

한국 기독교 전체가 지방 교회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급속도의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고, 소멸되고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한 교회라도, 한 영혼이라도 보존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에 신학적, 선교학적 이론을 들먹일 필요가 없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미 늦었다. 하루라도 빨리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은 현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농어촌 목회자연합회 혹은 그와 비슷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주체는 교단 총회나 교회 연합체와 대도시의 대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의 대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약한 지방 교회 교역자 생활비를 담당하거나 필수 비용을 제공하는 것, 도시교회들을 시무하다 생활비 보장을 받고 은퇴한 교역자가 지방의 약한 교회를 무보수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는 수 없이 문을 닫은 교회의 남아 있는 성도들을 신약교회나 중국의 가정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등 비상조치를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별로 시도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은퇴 교역자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교회를 잘 섬기던 평신도 가정은 은퇴한 후에 생활비와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소멸위기에 처한 교회가 있는 시골로 귀촌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향이면 더욱 좋고 여러 가정들이 같이 가면 더욱 좋을 것이다. 더러운 공기와 소음이 가득 찬 대도시를 떠나 깨끗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고, 텃밭을 가꾸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은 회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큰 복일 것이고, 이미 많은 귀촌이 이뤄지고 있다.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건강도 유지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그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그곳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므로 교회에 엄청난 힘을 보낼 수 있다. 능력이 있으면 환경운동 등 각종 계몽운동도 펼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교 귀촌이므로 삶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는 소중한 봉사가 아닐 수 없다. 골프, 등산, 장기, 바둑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의 대교회와 농촌교회가 자매결연하여 두 교회가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미 시도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다 한다. 예를 들어 배추 수확 계절이 되면 도시교회 성도 가정들이 필요한 배추를 농촌의 자매교회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이다. 농촌교회 교인들의 생산 물량이 부족하면 주위 농민들의 것을 현지 가격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다. 약속에 따라서는 무공해 혹은 저공해 방식으로 배추를 재배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농촌교회 성도들과 그 주위 배추 생산 농부들은 안정된 공급처를 확

보하고, 중간 상인들이 취하는 유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훨씬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도시 성도들은 믿을 수 있는 배추를 상대적으로 싼 값으로 살 수 있다. 다만 이런 시도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느 한쪽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을 분명히 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성도들과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에서 교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사회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도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물론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유통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면서도 선한 의지와 치밀한 계획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신실로 성공하기만 하면, 양쪽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에도 이바지할 것이고 그 농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교회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귀농인 숫자가 늘어나며,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버텨보아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이웃을 살려내는 교회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교회가 죽어가는 쇼핑몰을 살려냈습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시작한 교회가 부흥해 사람들이 모여며 상가가 활기를 띄게 된 것입니다. 음식점들을 위해 교회엔 식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신선한 방식이었습니다. <시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자들의 귀촌 및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교회를 유지하기를 제안합니다.

<특집>에서 김진양 부대표님은 통계조사에 기초해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을 지역소멸의 원인으로 꼽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양승훈 교수님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과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민 유입에 초점을 맞춰 대처 방향을 제시합니다. 김반석 형제는 지방소멸을 정주 인구 문제로 환원하는 이론의 한계를 넘어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도의 하나로 교회의 역할을 바라봅니다. 서지에 자매는 교회를 살려내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례에서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지방교회의 목회자님들의 글은 현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주 외곽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김도형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가진 분답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독교 세계관 목회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전정림 목사님은 연고 없는 진도에 이주해 교회를 일구어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90명의 아이들이 5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봐야 했지만, 여전히 소망을 들려주

니다. 남해에서 사역을 했던 장성민 전도사님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벽을 넘어서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가능성임을 강조합니다. 하규하 목사님은 무교회 지역에서 토흙교회를 개척해 2000천 평 농사를 짓는 농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민찬양 자매는 귀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도우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가로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지방교회 살리기 말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 사이>에는 천안 광덕교회를 29년간 섬기신 김정운 목사님과 충주 전원성결교회 한석봉 목사님을 통해 지방소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성도의 대부분이 70대이고 관내 학생은 60명이 안 된답니다.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이 더 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재정적으로 자립을 유지하지만 앞으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마을이 곧 교회라는 정신으로 마을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과 지역축제로 발전하는 교회가 주도해 지자체의 지원도 이끌어낸 경우도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농사를 하며 뽕나무 작목반 반장을 하시며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성찰하며 “농촌목회신학”을 정립해 행복하고 감사한 목회를 하고 있다며, 농촌 목회에 특화된 전문적 농촌 목회자의 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십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학회의 부회장인 서울신학대 김성

원 교수님이 소개됩니다. 서울신학대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개설하여 가르치며 교재를 개발했고, 복음주의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섬기며 변혁하는 역할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로 제시하십니다.

〈청년 시론과 청년일터〉에서 홍철민 형제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대학공부를 위해 한국에 와서 맞닥뜨렸던 지방소멸의 현실의 체험담과 캠퍼스 사역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각과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는 김태훈 형제는 믿음으로 열악한 현실과 씨름하는 청년 예술가의 삶과 작업이 하나님 은혜를 들려주는 통로가 되려는 바람을 나눕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권리 정책 개선 활동을 했던 변지영 자매는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학위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섬김의 삶의 길을 걸으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영화를 보다〉에 추대화 교수님은 버려진 광아와 같은 땅인 아프리카에서 한센씨 병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돌보았던 이태석 신부님의 일화인〈울지 마 톤지〉가 보여준 미담을 소개합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미술을 보다〉에서 기독교미술인 공동체인 아트미션의 정기전이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빛나다’라는 정기전을 통해 일반은총 공부와 작품활동이 연결된 이야기와 함께 예술을 통한 공동체 섬김의 예를 소개해줍니다. 〈책을 보다〉의 고세일 교수님은 레슬리 뉴비긴이 〈세상 속 교회의 길을 묻다〉에서 교회가 희망을 상실한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의 회복이 중요함을 깨우쳐 줍니다. 석중준 선교사님은 AI 전문가 이호수 박사님의 〈하나님이 궁금한 당신에게〉에 담긴 과학자가 깨달은 창조 세계의 신비와 구원의 은총을 소개합니다.

〈교회로〉에는 창원 성산교회 기독교 세계관 프로그램에 대한 이승철 담임목사님의 소개와 여개동무 교육공동체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안태석 선생님의 수

업 내용과 경험이 소개됩니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성경의 렌즈로 해석하는 과제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목사님, 선생님을 영웅으로 써낸 것을 보며, 지식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생활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경험을 들려줍니다.

〈온전한 지성〉에는 최용준 교수님이 네덜란드의 철학자 헨드릭 반 리센의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인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의 본질을 파헤친 통찰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KAIST에서 열린 ‘제9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 콘서트’의 소식도 전합니다. 서울에서 많이 내려가 7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의 뿌리인 책 읽기 모임의 활성화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방소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멸을 우려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귀에 못 박히게 들으며 자란 세대에겐 참 낮은 현실입니다. 〈시선〉의 끝 말쑤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버텨보아야 한다.”

유달리 더운 여름에도 귀한 원고를 써 주신 모든 분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회원들과 후원교회가 늘 평안하시며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를 되살리는 소망의 근원이 되길 기도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지방소멸과 교회 소멸

김진양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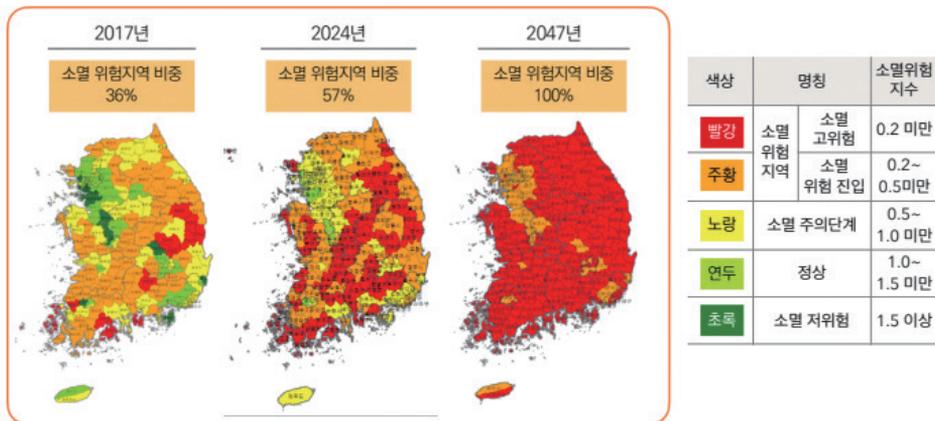
‘지방소멸’, 낯설지만 섬뜩한 단어이다. 지방이 없어진다니? 지방이 어떻게 없어진다는 말인가? ‘지방소멸’이라고 해서 있던 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지역이 공동체로서 기능을 유지하려면 일정 규모의 인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소멸’이란 인구가 줄면서 학교, 병원, 교통, 일자리, 공동체 문화 등 시·군·구의 생활기반이 붕괴되어 마을이나 도시는 껍데기만 남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가운데 57%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전북, 전남, 경북, 강원은 약 90% 내외의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고, 충남과 충북은 80%,

경남과 부산은 70%, 대구와 대전은 각각 44%와 40%, 인천과 울산과 경기도는 30% 이하의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한다.’ 그 가운데서도 소멸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은 강원, 경북, 전북 등의 내륙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2047년이 되면 서울 수도권과 경남 산업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고, 둘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²은 0.75명에 불과하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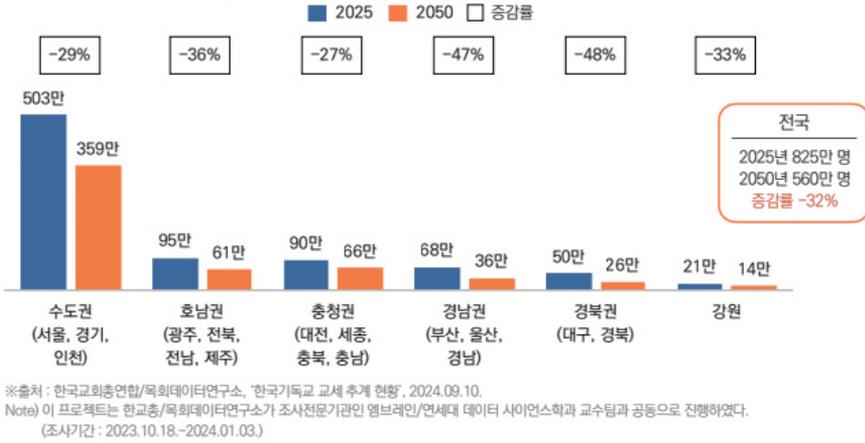
[그림] 시군구별 소멸 위험지역 현황 및 예상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2024.06.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2021.07.

1) 국가통계포털(www.kosis.or.kr). '주민등록인구통계', 2024. 03
 2)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그림] 권역별 기독교인 수 전망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멸종’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도 심각하다. 2024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수도권 집중도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이다. 2024년 12월 통계청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2,630만 명으로 총 인구 5,175만 명의 50.8%였다. 비수도권 인구는 2,545만 명으로, 수도권이 약 85만 명 더 많았다. 199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45.9%, 비수도권은 54.1%였으나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 2019년 골든크로스를 지나면서 수도권이 역전했고,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지방소멸 압박은 더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자연스럽게 지방 교회의 위기와 직결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실시한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그리스도인 수는 2025년 825만 명에서 2050년 560만 명으로 약 32%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경북권은 48%, 경남권

은 47% 줄어들어 영남 지역은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호남권도 3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지만, 그래도 각각 29%와 27% 감소가 예상된다.

결국 지방소멸은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기에 교회 역시 피할 수 없다. 교인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교회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소수만 남는 교회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남아 있는 교인들도 주로 노년층이어서 교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여전히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환기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진양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이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사회학적 안목과 여론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 현장의 변화 흐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이다.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회사 ‘지앤컴리서치’ 부사장을 맡고 있다.

지방소멸과 교회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본에서 수입한 ‘지방소멸’이란 단어가 이제 한국에서 지방을 떠올리기 위해 가장 유력한 개념이 됐다. 일본의 전 총무상이었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2014년 5월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의 지역들에서 노인은 늘고, 아이를 낳아줄 여성은 부족하니 지방은 후계를 만들지 못해 소멸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히로야는 가임기 여성(20~39세)의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나눈 것을 소멸위험지수로 보자고 한다. 직관적으로 한국의 모든 지방은 소멸이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1을 밑돌면 쇠퇴위험지역,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 전국 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까지가 소멸위험지역에 들어가고, 쇠퇴위험지역을 면한 시도는 세종 하나에 그친다. 시군구로 볼 경우 2024년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2047년이 되었을 때 모두가 소멸위험지역

이 된다. 지방소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을 걱정하게 될 상황이다.

미디어와 SNS의 시선은 인구 이야기만 나오면 급격히 우울함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독일의 지식 채널인 <쿠르츠게작트>(Kurzgesagt)는 인구학의 지식을 빌어 “South Korea is Over”(한국은 끝났다)라며 선언하기도 한다. 지방을 다루는 지상파 뉴스에서조차,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기력도 없는 노인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은 동네, 하루에 버스 두 대가 채 오지 않는 지역의 대중교통망, 문을 닫는 학교의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

파국은 정해진 것일까? 오해는 건어내고 진실과 마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지방소멸이 일본과 다른 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불균등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장기경향으로 지방소멸이 각 지방에 부과되는 것이라면, 한국의 지방소멸은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

성격이 크다. 가만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나이 들고 새로운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의 대학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공격적으로 이주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8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을,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부문의 수도권 확대가 이러한 흐름을 이끌고 있다. 지방에는 제조업의 생산직 일자리나 저부가가치 일자리가 남고, 수도권에는 연구소나 고부가가치 공장(반도체 등)이 전개하는 상황, 이른바 ‘공간분업’의 전개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현재의 지방소멸로 드러나는 사태는 적어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타개책도 마련할 수 있고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 수준의 소규모 지자체들은 스스로 교정하기엔 ‘불가역적인’ 지방소멸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지방소멸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컨대 노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천 원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운영하는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빈집(空家)을 타지역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들의 ‘시골살이’를 후원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이는 어찌면 지역을 찾는 청년들을 환대하면, 겨자씨 한 알의 기적처럼 지자체를 살려낼 것이라는 소망에 가까울 지도 모른다. 반면 최근 뉴스에 나오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방에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들이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며,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에 ‘정면’으로 맞서자는 기획에 가깝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부산·울산·경남 광역전철망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보강하려 한다. 골리앗에게 돌팔매질을 하려는 다윗과, 갑주를 입혀주는 사울의 노력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모습에 빗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청년 유출 모두

의 영향을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지방의 교회들은 말씀의 선포에 앞서, 어떻게 누구를 섬겨야 할지가 완전히 달라진 인구통계적 맥락 속에서 막막한 질문이 되었다. 고도와 같이 막연히 기다려야 할 ‘내국인’ 청년만 찾는 대신, 이미 농어촌과 산업도시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작은 공동체들로 유입되는 낯선 종교와 문화로 인한 이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성숙한 종교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언어를 버려내는 것이 당분간의 숙제가 아닐까 싶다. 축소되는 지방이라는 문제설정은 단순히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고령화되고 역동성이 쪼그라들고 있는 한국 교회의 평균적인 질문에 덧붙여,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맥락까지 교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다.

최근 이찬혁의 노래를 듣다가 어렸을 적 교회에서 처음 들었던 ‘복음성가’와, 10대와 청년기 내내 ‘찬양인도’를 하면서, 또 각종 공연을 통해 접했던 ‘CCM’의 추억이란 게 이제 그저 추억일 뿐,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다고 느꼈다. 급격히 재편되는 지방의 예배당과 친교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도, 어찌면 본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 모쪼록 교회를 둘러싸고 애쓰는 사람들이 요모조모 열린 마음으로 주변 상황을 느껴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길 바랄 따름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이다. 모태신앙으로 청년기까지는 단단하게. 이후에는 느슨하게 교회와 얽혀서 지냈다.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토대로 일자리, 청년,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다. <중공업 가족의 유포피아>, <울산 디스토피아> 등의 책을 썼다.

지방소멸, ‘인구론’을 넘어

김반석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지방소멸’은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를 중심으로 출간된 <마스다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의 유출, 도쿄로의 일극 집중이 마침내는 일본 전체의 인구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지방소멸론은 이후 한국에 도입되어, 많은 지자체에 인구 감소와 지역의 쇠퇴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소멸론은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과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을 정량적인 트렌드로서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상적인 수준으로만 논의되던 지역 불균형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강력하게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역 인구의 감소는 지자체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 유지의 곤란, 지역 상권의 쇠퇴 등의 도미노 효과로 이어지며 지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를 지방의 ‘지방소멸’이라는 극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수

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져올 파국의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맹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지역 쇠퇴의 문제를 인구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가 지방소멸의 근거로 제시한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누어 인구의 자연 소멸 위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지역의 쇠퇴 과정을 정주민구의 감소라는 차원으로만 축소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소멸’이라는 단일한 시나리오를 부각함으로써 지나치게 위기감을 부채질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구조나 지리적 위치, 인접 도시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인구 변동의 패턴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역 쇠퇴의 요인과 그 속도도 서로 달라진다. 하지

만 '지방소멸론'은 결국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멸'이라는 단일한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어떻게든 정주인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이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앞서 본 지방소멸지수는 철저히 현재 지역에 거주 중인 인구만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이러한 이동의 패턴은 정주인구의 많고 적음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의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의 패턴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 시나리오도 달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근래에는 지역의 붕괴를 정주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2021년에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인구의 증감 트렌드뿐 아니라 청년들의 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율과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인구의 변동상을 다양한 지표로부터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간 내 인구 이동을 고려한 생활인구, 도시농촌 사이를 이동하며 지속적인 교류의 매개를 만들어내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정주인구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어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 속도를 조정해 가면서 지역의 활로를 조금씩 찾아 나가는 노력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렇듯 지방소멸을 정주인구의 문제를 넘어 다각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시도는 교회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교회의 통폐합이나 노회 조직 등을 재정비할 때, 단순히 인구의 감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인구 변동의 패턴, 인접 지역과의 관계,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과 생활권 등을 고려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인구, 관계인구의 차원에서,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도시농촌 교류의 계기와 관계인구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농촌 교회의 농산물 판매, 게스트하우스 운영, 귀촌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시 교회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도시의 성도들과 지방의 성도들을 잇고, 지역을 경험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노래했다(사 42:3). 쇠퇴해가는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 모두가 지역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남아 있는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아직 꺾이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함께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석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 준비 중이다. 서울대 인류학과 학부와 동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석사과정에서 한국 청년들의 지방 이주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지방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높은뜻오차노미즈교회에서 유치부와 통역부를 섬기고 있다. 2022년부터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촌 교회에서 발견한 소망, 이웃과 함께 살기

서지애 (서울대학교 종교사회학 박사과정)

두어 시간마다 버스가 다니는 농촌에서 자란 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도시는 꽤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곳이었다. 금세 풍경이 바뀌는 시내의 거리가 질릴 리 만무했고, 체험학습 삼아 말로만 듣던 유명한 교회 이곳저곳에 발을 들여보기도 했다. 시골에 살면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 과연 도시는 두고 온 고향에 비해 놀거리도, 사람도, 기회도, 정보도 훨씬 많았다. 나는 종교학과에서 한국 개신교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중에, 문득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 역시 도시의 사례에 불균형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었던 1960년대, 1970년대 이래 수도권 지역의 종교 지형의 변화는 연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을 조명한 연구는 주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대두한 대형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고, 대개 비판과 우려의 논조가 담기곤 했다.

한편, 농촌 교회는 연구자들의 시야에서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었고, 나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 소재한 종교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과연 농촌과 농촌 교회가 언급되는 자료들은 위기감

넘치는 목소리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농 현상과 고령화와 같은 상황은 교세와도 무관하지 않아서 교계에서는 농촌 지역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로 인식하기도 했다. 농촌과 농촌 교회는 존립마저 염려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소망을 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는 소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종종 성장세를 보이며 좋은 목회 사례로 언급되는 교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만났던 사례 교회들은 그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관계를 쌓아왔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했고, 또 다른 교회는 폐교 직전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십수 년간 차량 운행을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었고,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들 간의 즐거운 교류를 위해 매년 축제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었다. 분명한 점은 농어촌 교회가 벌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결코 단순한 시혜적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프로젝트나 일회성 봉사도 아니었다. 활동의 종류나 규모를 나열하자면 도시의 대형 교회에 한참 못 미

치지만, 이들 교회는 지역 사회에 확실히 뿌리내리고 녹아 들어가 있었다. 교회 건물이 작은 대신 문턱이 낮았고, 조금은 덜 세련되더라도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소풍, 잔치, 모임이 곧잘 기획됐다. 이들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자 마을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곧 교회의 관심사로 여겼다. 그들은 이웃과 함께 생활 환경을 공유하며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활기를 북돋우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흥미로웠던 점은 이처럼 지역 사회에 꾸준히 참여해 왔던 교회들에 종종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인터뷰이었던 한 목회자는 주민으로부터 “목사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저도 교회 나갈게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내게 전해주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민들이 교회에 친밀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했다. 본인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역 교회를 가리켜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마을의 대소사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는 주민들도 있었다. 군이나 면 차원에서 교회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화 논의를 촉발했던 학자들이 주목하고 예견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와는 다른 결의 현상이다. 또한, 국교의 지위에 있던 기독교의 통제로부터 사회의 여러 영역이 분화된 역사적 경험이 깔린 그들의 논의에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성격이 ‘강제력’이나 위로부터의 ‘통제력’으로 상정되어 온 것과는 달리, 사례 교회들의 영향력은 개인적, 공적 수준에서 인정받으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아래로부터 관계 기반으로 쌓아온 것이었다.

많은 교회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가 성장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수도권은 과밀해졌으며 이제 지

방의 소멸을 운운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지방에서,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이 대도시로 향할 때, 빠른 문제 해결과 성장을 바랄 때,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구름호수 마을에, 신죽3리 마을에, 사천 마을에, 그리고 이밖에 아름다운 마을들에서 이웃과 함께 살기로 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면서 말이다.

나의 또 다른 인터뷰이였던 한 목회자는 시골 교회의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자신이 트랙터를 몰고 마을에 들어오자 주민들이 “목사가 이제는 우리랑 같이 살려나 보다”라고 했다고 말해주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밭붙이고 있는 물리적인 이 땅, 이 지역에서 이웃과 눈을 맞추고 어울리며 함께 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논밭에서 땀 흘리는 농부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며 “수고하십시오”라는 인사만 하기보다는 직접 땅 위에서 농부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양복 차림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대신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마을의 대소사를 쫓아다니는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과 함께 울고, 웃고, 머리를 맞대고, 떡을 떼고,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FAITH & LIFE**



✍ 글쓴이 서지애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한국 농어촌 교회의 지역 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종교사회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한국 개신교 목회자 배우자(사모)’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으며, 구(區)에서 분양받은 작은 텃밭도 일구고 있다. 논문으로 농촌 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한 관련 주제 연구자로서의 고민을 담은 “농부가 된 한국 개신교 목사들: ‘삶으로 살아진 종교’로서 농사짓기”(2024)가 있다.

생존과 부흥을 동시에 꿈꾸는 시골교회 이야기

김도형 (충주 새로운감리교회 담임목사)

한국사회의 인구 감소가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리라 예측하는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십 수년이 지났고 이제 그 예측들은 현실이 되었다. 인구 감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였고, 비수도권 곧 지방은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에 더해 심각한 인구 유출로 소위 '지방소멸 시대'로 접어들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시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에 비추어 본다면,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은 곧바로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의 절대 숫자가 줄어드는, 비수도권 교회의 소멸과정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흐름을 현실로 겪어내야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지역에 위치한 농촌교회에서 십여 년을 목회하며 생존과 부흥을 위해 고민했던 몇 가지 주제와 대안들을 나누려 한다.

첫째, 부흥에 대한 관점과 기준을 변화시켜야 한다. 필자가 목회하는 새로운교회는 충북 충주시 변두리에 위치한 농촌교회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충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이다. 30여 년 전의 교회 사진을 보면 아이들과 청년들만 일백 명 이상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모였던 기록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곳에 담임목회자로 부임한 초기에 예전의 기억을 가진 오

래된 성도들이 그때의 부흥과 활력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때처럼 부흥되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드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현실이 된 시골교회에 예전의 양적 부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시대에 시골교회는 '부흥'을 꿈꾸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부흥에 대한 기준과 관점을 바꾸면 가능하다. 전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예배당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이던 20세기 후반의 양적 성장 일변도의 부흥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버리고, 대신 성도들의 변화가 부흥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 그에 따라 달라진 성도들의 삶의 변화,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변화를 부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긴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변화이다. 하지만 지난 십여 년 동안 부흥의 기준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나누고 추구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느리지만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의 양적 규모는 줄었지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말이다.

둘째, 사역에 창의성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던 때에는 교회학교부터 장년 선교회에 이르는 모든 사역이 한 교회 안에서 실현 가능했다. 사역의 대상과 자원들이 넉넉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재 비수도권 교회는 인구 절벽과 더불어 교회학 교의 소멸, 성도들의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사역 대상자도 줄었거나 재정적·인적 자원도 부족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웃 교회들과의 협력이다. 몇 년 전부터 각 교회별로 몇 안되는 중고등 학생들을 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연합 청소년부를 만들어 예배하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의 재능과 전공을 나누며 각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세우고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사역의 한계를 함께 넘어서려 노력한다. 사역의 다양성과 창의성도 필요하다. 지방에 위치한 교회는 수도권 교회들과 문화적 격차가 있기에 양질의 기독교 영화나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문화체험 원정을 떠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된 가치의 사역들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골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텃밭가꾸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평생 농부로 살아온 성도들이 자기들의 농사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지역주민들과의 좋은 관계도 형성하게 해준 기회였다. 이 외에도 노년기 성도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 창조론 및 세계관 탐사여행 등의 사역을 진행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작은 교회이지만 창의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환대와 회복과 초청이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시골교회일수록 성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교회와 목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실 부흥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또 창의적이며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역을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

계가 폐쇄적이고 고착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환대와 회복과 초청이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이다. 부흥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변하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들을 만들어 함께 할 때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이럴 때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환대하여 단절되어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관계로 이끌 수 있다. 시골목회 십년이 지나가니 이제는 뿌려놓은 변화가 조금씩 싹을 틔우는 것 같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친정같이 편한 신앙공동체로 새로워졌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 크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누구든 편하게 들러 예배하고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시골교회가 되었으니 말이다.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의 시대, 생존과 새로운 부흥을 동시에 꿈꾸는 시골교회의 이야기가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도형

충주새로운감리교회 담임목사이다. 밴쿠버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시카고 개혁신학교와 워싱턴DC 웨슬리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 전환기지역연구소 대표로 노년성도를 위한 '인생리뷰수련회', 창조론 현장교육인 '창조론필드트립'을 기획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 인구 감소 그 대안은 무엇일까?

전정림 (진도 칠전교회 원로목사)

우리 나라에 국가적 과제로써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국가 미래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정을 퍼부어보지만 좀처럼 풀지 못하는 정책 중 하나인 것 같다. 인구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현상, 결혼을 해도 만혼으로 불임 부부가 많은 현상, 아예 자녀를 두지 않고 둘만의 삶을 위해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 자녀를 낳는다 해도 한두 명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현상 등이 오늘날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 생각한다.

나는 40여 년 전 도시를 떠나 섬 지역 농촌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다가 정년이 되어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은퇴한 후에 지난날과 현실을 돌아보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농촌에 젊은이들이 적다는 것이다. 개척 당시 군 인구가 1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8천 명으로 군으로서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농촌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단일 마을이지만 주일 학교의 유치등부가 50명, 중고등부가 40명으로 활기차던 교회가 지금은 마을 아이들을 다섯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없는 현실이다.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는 현실에서 교회 목회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지만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오늘 대부분의 농촌교회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농촌교회는 젊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은 없고 노년층만 남아 있는 농촌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 답답하기도 하다. 지자체마다 농촌으로 오라는 손짓은 다양하지만 귀농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귀농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할까?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첫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길을 열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신다. 어떤 면에서는 40여 년 전에도 농촌 목회는 어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에 생활고는 힘들었지만, 사명감으로 굽주리면서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인구 감소가 농촌에는 심각하지만 뜨거운 사명감으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갈 때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대안은 무엇보다 사명감에 불타올 때 필요한 자들을 보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봄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는 어려운 농촌교회 현실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농촌 목회 40년 동안 목회의 방향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청소년들에게 항상 꿈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진도 섬 아이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 구경을 시켜 주었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도 눈을 돌려 비전트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비록 농촌 고향교회는 떠나 살고 있지만 고향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매달 보내면서 고향교회를 같이 섬겨가고 있다. 어린이들이 아예 없는 곳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교회는 어린이들을 잘 복음으로 가르치고 큰 꿈을 심어주어서 일꾼으로 세워가야 한다.

안타까운 소식은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라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주일학교를 안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하면 될 것 아닌가? 필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목회 사역에도 주일학교에 심혈을 기울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더니 농촌교회에서도 사회에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 배출되었다. 10여 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 17명과 교사 2명을 이끌고 미국과 캐나다로 비전트립을 11일 동안 다녀왔다. 그때 함께 참석했던 아이들이 꿈을 안고 미국에서 2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025년 7월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3주 동안 미국에서 영어캠프와 여행을 즐기고 꿈에 부풀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서도 사역을 감당한다면 의미 있는 목회 사역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 가지를 더 제안한다면, 대부분 고학력자인 목회자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지역주

민들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꾸며 문화 환경을 잘 가꾸어 가면,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은 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제한된 글 속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는 지역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도시 생활에 시달리는 자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농어촌 교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어려운 이유는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있다는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에 전능하신 분 손에 이끌려 산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그리스인으로서 대안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현재 은퇴를 하고 뒤에 앉아 있지만 젊은 후임자가 열정을 가지고 농촌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욱더 잘 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농촌교회 목회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저출산, 농촌 인구 감소는 농촌 목회의 위기이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바꾸어가는 창조적인 사역자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전정림



진도 칠전교회(예장 합동) 원로목사. 1983년 대전에서 진도로 이사하여 총무교회와 칠전교회를 개척하여 2022년 은퇴하였다. 예장 합동 목포노회 노회장, 국제금주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지방소멸과 농촌 교회의 선교적 응답

장성민 (김포 성광감리교회 전도사)



경남 남해 삼동면 물건리라는 농촌에 소재한 물건리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한다. 물건리에는 주일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부모님들을 대신해 운영되는 교회 중심의 아동 돌봄프로그램이 있었다. 매 주일 약 15명의 아이들이 모였지만, 예배와 오후 돌봄프로그램을 섬길 사역자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마침 나는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어느 날 울진중앙교회 청년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대화 중 들은 “울진 같은 시골에 어느 사역자가 오겠어요”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때 “내가 가야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 결단하게 되었다.

나는 물건리교회 전도사로서 부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사역자로 섬겼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태권도 수업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기타도 가르치고, 노래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역을 함께 이어갔다. 아내는 함께 주일 사역을 하며, 아이들의 생일마다 직접 케이

크를 만들어 선물하며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의 사역이 국내 선교의 한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며, 작지만 진실한 섬김으로 복음을 살아내고자 노력했다.

나는 이렇게 남해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며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을 피부로 깊이 체감하게 되었다. 경험한 바를 진솔하게 나누자면,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나고,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마을 곳곳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 학교가 축소·병합되거나 폐교 위기에 놓이는 상황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공동체의 활력과 관계망, 신앙의 맥락까지 흔들리게 한다.

또한, 고령화된 지역의 현실은 의료, 교육, 문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신생아와 노약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병원과 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문 교사와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다. 이는 교회의 사역 환경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과 청년 인구가 줄어 주일학교와 청년부 활동 참여자가 감소하고, 부모 세대의 신앙이 희미하거나 부재한 경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떠나게 된다. 결국, 교회는 고령화와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예배와 모임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 오랜 전통과 강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외부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새로운 시도나 외부 인력이 쉽게 스며들기 어렵고, 때로는 작은 갈등이 커져 마을의 화합을 가로막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교회가 막힌 답을 허물고 화해의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건리교회는 예배 외 문화·여가 활동을 기획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 악기교육 등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 행사에 함께 함으로써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및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에서 느낀 점과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나눌 것이 있다. 남해 물건리에서 마을 주민들 및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매체는 물론이고 교인과 주민, 교인 상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뢰가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 쉽지 않으며,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진정성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특히 새로 마을에 들어온 젊은 청년이나 부부층은 자신을 지켜줄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보호와 안전망이 되어주겠다는 전도 방식이 교회 출석을 강요받는 듯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점도

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거나 “교회에 나오라”라는 권유만이 아니라, 먼저 이웃과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진심 어린 관심과 자연스러운 관계 맺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교회는 교회 공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며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며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교공동체’로서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로 사역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역자와 교회 공동체의 지나친 배타성이나 고정된 신앙의 관점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프로그램이나 규범이 아닌, 진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가능성이라고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성민

김포 성광감리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준비 중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교선교사훈련원(MMTC) 훈련을 이수했다.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경남 남해의 물건리교회에서 농촌 목회자로 사역했다.

지방소멸과 교회의 역할

하규하 (남해 토흥교회 담임목사)



지방소멸이 쓰나미처럼 속도를 내고 달려오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입니까?

교회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무모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적인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1. 남해로 가다.

지난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에 남해 동쪽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신전마을로 이사를 해서 토흥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은 아예 교회가 없었던 '무교회' 지역이라는 것이 선교사로 잠시 살았던 우리 가정에게는 운명처럼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신전마을에 세워진 토흥교회에서 새롭게 3가정과 남자 성도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기

아무런 연고도 없고, 후원자도 없이 내려온 남해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를 기도하는데 우연히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남해로 왔다고 인사 글을 올렸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재정과 물품을 보내주셔서 비록 빌린 집이지만 빈집 한 칸을 교회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했고, 헛간을 고쳐 조그마한 동네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몇몇 분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였지만, 그 와중에 후배선교사가 보내준 붕어빵 기계로 붕어빵을 만들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교회 간판도 달 수 있었습니다.

3. 농부가 되다.

우리가 사는 마을은 70가구 정도 되고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남해는 섬 지역이라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지만 우리 마을은 바닷가와 거리가 있어서 농업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도시에서 자라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내가 교회 뒤에 있는 텃밭에 고구마를 몇 개 심은 것을 시작으로, 나이가 드셔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마을 어르신들의 요청과 권유로, 물론 모두 빌린 땅이지만 지금은 약 2000평의 논과 밭 심지어 비닐 하우스 농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농사를 지어도 되나?”라는 질문도 받게 되지만, 농촌에 새롭게 삶을 시작한 비교적 젊은 목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평생 부지런히 땅을 일군 마을 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어서, 힘들지만 즐겁게 농사를 지으며 목사 이전에 마을 사람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 먹거리로 이어지는 연합

수확한 농산물은 처음에는 서울에는 있는 쪽방촌에서 사역하는 교회에 식재료로,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의 부모님들께 조금씩 보내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버틸까?”라고 반신반의하던 지인들이 조금씩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다음해 농사의 시드머니(종자돈) 정도지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특히 도시교회에서 이곳 상황을 알고 직접 팀을 꾸려 방문하셔서 반찬 나눔, 전등 달기, 의료 봉사 등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도시 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영적인 안식과 충전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힘들고 지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곳이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빌라델비아 교회

저희 가정은 소아시아지역에서 선교사로 7년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가는 기

회가 자주 있었는데, 그중에 미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토흠 교회는 지혜를 구하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뜻이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과거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운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으로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협력한다면, 이를 통해 지방이 소멸되는 것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소멸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꿈을 남해에서 꿈니다.

“빌라델비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계 3:7).

FAITH & LIFE



글쓴이 하규하

경남 남해 토흠교회 담임목사이다. 부산에서 출생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2003년 소아시아지역에 선교사로 파송 되어 사역하다가 귀국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목사로 안수받고(2016), 토흠교회 개척(2021)하여 사역하고 있다. 논과 밭, 비닐하우스에 시금치, 마늘, 단호박, 호랑이콩 농사도 함께 짓고 있다.

소멸을 앞둔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민찬양 (팜앤디 협동조합 로컬크리에이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인생의 선택지에 '귀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서울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이 내 앞에 놓인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한 친구의 연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다.

“농촌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해. 같이 할래? 여기는 도전할 수 있는 공백이 많이 있고 우리 같은 청년들이 필요해.”

도시에서 '굳이 내가 필요 없는 곳에 억지로 나를 끼워 넣는 느낌'을 가장 크게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말이 마음을 크게 움직여 결국 농촌으로 발을 옮겼다.

지역에 전혀 기반이 없는 청년 4명이 모여 각자의 재능을 살린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내보았다. 처음

에는 홈페이지 개발이었다가, 디자인 외주 작업이었다가, 마을 공동체 활동이었다가, 홍보 영상 제작이었다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다 점점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등으로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졌다.

초기 3년 동안은 대표적으로 '청춘작당'이라는 '청년 귀촌 프로젝트, 곡성 100일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실제로 3년 동안 전국에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유입했고, 프로그램 종료 후 40여 명의 청년이 지역 정착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거지와 일자리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청년이 지역을 떠난 상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러스틱타운>이라는 '워케이션'(Workcation) 빌리지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에 지역을 소개하고 향후 다양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기획 개발, 디자인, 로컬 매거진 제작, 지

역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외주·용역 에이전시도 병행하고 있다.

처음 귀촌했을 때 즈음부터 '지방소멸, 지역 재생, 인구 정책'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인구 감소 현상이 '사회 트렌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인구수 자체가 줄고 있고, 모든 지역이 소멸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인구 확보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함께하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마을에 함께 살던 어르신들이 한 분씩 계속 돌아가신다. 동시에 마을에 생기가 없어지고 빈집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소멸'이라는 단어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8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키플레이어(Key Player)가 있고 없과의 차이는 크다. 결국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힘은 무료로 제공하는 집이나 일시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많이 떠나기도 하겠지만 최소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청춘작당'을 통해 지역에서 100일 동안, 한 달 동안 살아봤던 청년들 중 대부분이 곡성을 인생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쉽거나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키플레이어들이 연고 그 자체가 되어 관계가 이어진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처음 맨땅에 헤딩하며 헤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에

는 우스갯소리로 "곡성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면 어때?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지."라고 말하며 웃었는데 사실은 정말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오고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생각한다. 70년이고 100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큰 변화가 없는 일상을 성실히 살아냈던 사람들을. 우리도 지금은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는다. 처음부터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매일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민찬양

팜앤디 협동조합 로컬크리에이터이다. 8년 전 연고 없는 곡성으로 귀촌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팜앤디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3년간 '청춘작당'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기획/운영했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지방소멸 시대의 목회자들

: 김정운(천안 광덕교회 담임목사),
한석봉(충주 전원성결교회 담임목사)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47년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소멸의 위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특별히 한국의 지방(도시/농촌) 사회가 직면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문제는 지방에 소재한 교회에 역할의 큰 변화와 존재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대하고 접근하는 것으로는 교회의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호 '사람 사이'는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교회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사례와 혜안을 얻고자 한다.



(상단 왼쪽부터 김반석, 김정운, 한석봉)

인터뷰어 김반석(도쿄대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일시 & 장소 2025년 9월 3일(수), ZOOM 회의실

김반석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우선 섬기고 계신 현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운 저는 현재 천안 광덕교회를 2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천안 남쪽에 세종시와 경계 지점에 있는데요. 29년 전 미리 가 보지도 않고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농 직거래를 함께 도와줄 생각이었는데요. 정작 부임하니 교인 분포도가 농업 40%, 상업 30%, 직장인 30%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농업만 돕는 사역이 아닌, 지역사회 봉사를 병행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선 교회 대문을 열어서 입구를 넓게 만들었고, 경로잔치, 바

사회, 독거노인 반찬 배달, 공부방 운영, 환경 보호, 교회 앞넷가 쓰레기 치우기, 찜질방 운영, 교회부지 무상 제공, 그리고 천안시 지원으로 건립한 노인들을 위한 실내 게이트볼장과 복지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화로 봉사자들이 줄어들어 운영을 절반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석봉 우리 충주 전원성결교회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사천 후동길에 있습니다. 이른바 사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모래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런지 받을 갈아도 돌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을의 가구 수는 약 150가구에 주민은 약 350명가량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더러 30-50대도 있지만 거의가 70-90대의 노령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60여 명의 성도들이 있고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작물은 그전에는 사과 농사와 담배 농사가 주였고 기타 여느 농촌 마을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김반석 한국사회에서 ‘지방소멸’ 담론이 널리 이야기된 지도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목사님들이 계신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인구 변화나 지역 공동체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김정은 우리 지역은 사방이 산에 둘러싸인 소농지역인데요. 부임 후 지금까지 96명 교우들의 장례를 모셨고요. 70세 이상 교우들이 거의 72% 정도입니다. 면(面) 관내에 초등학교가 세 개 있는데 모두 합해도 학생이 60명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농사만 지어서는 생활 유지가 안 되기에 주변 농공단지, 아파트 및 회사 청소나 경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석봉 먼저 마을에 노령 인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동량면과 금가면 두 개 면이 있고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조만간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럭저럭 운영해 가는 중학교의 학생 수가 약 40~50여 명 정도입니다. 계속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우리 면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회의 상황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요. 코로나19 전에는 1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후에는 60여 명의 성도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성도

는 많은데 태어나는 아기가나 유입되는 성도는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1년에 3-4명 정도 꾸준하게 전도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2003년에 이곳에 처음 부임했을 당시 1년에 6-7회 정도의 결혼식 주례를 썼다면 지금은 그 정도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반석 목사님들은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 공동체, 재정, 지역 관계 등 구체적인 차원에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은 우리 교회는 교인 수나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저는 3년 전 농어촌교회 현실을 아는데요. 현장 목회자들의 요청을 받은 총회가 ‘총회 농어촌교회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주었는데요. 그때 제가 위원장을 맡아 첫 사업으로 총회내 3,100개 농어촌교회의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어려운 현실을 압니다. 약 2천의 교회 목회자들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23년 주일 평균 출석 성인 교인 수는 10명 이상 20명 미만이 25.9%로 가장 많았고요. 20명 이상 30명 미만이 18.2%, 10명 미만이 13.8% 순이었습니다. 합계로 보면 30명 미만 출석 교인 수 비율은 약 60%입니다. 주일예배 참석 교인 중 성인 비율은 60~70대가 67.1%로 가장 많았고 20~30대가 1.7%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정 규모는 연간 1천만 이상 2천만 이하가 19.6%, 2천만 이상 4천만 미만이 15.2%, 6천만 이상 1억원 미만이 16.2%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4천만 원 미만이 약 35% 정도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한석봉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는 아직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전



충주 전원성결교회 전경

도한 분들 또는 귀촌하신 분들도 계속 있어서 재정도 아직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역과의 관계도 그동안 꾸준히 해 온 것이 있어서 사역에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기존 세대가 그럭저럭 버텨 주고 있지만 5-10년 후에는 큰 어려움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반석 변화하고 있는 지역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교회나 목회자가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역 방식이나 접근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제가 보기에는 전통에 따라 물 흐르듯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지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비량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마을이 곧 교회다”라는 정신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목회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농사 공동체, 행정기관

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 협동조합, 도시락 제공, 반찬 배달, 아동센터 등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한석봉 글썽요. 각기 다양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이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방송인 CGN이나 여러 방송에서 많은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또한 환경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반석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지난 10년간의 변화 흐름은 어떠하셨는지, 또 지방도시와 농어촌에서의 차이는 어떠하다고 보시는 지도 진솔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제가 섬겼던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의 답변에 따르면, 10년 후 농어촌교회는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4.4%, 그대로 유지가 어려워 인근 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11.4%로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어촌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설문의 답변에서는,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38.1%,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가 24.8%, 희망이 없다는 응답도 2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중에 1순위는 농어촌 인구 감소가 46% 가장 많았고, 인구 고령화는 43.2%, 소득 감소는 2.5%로 나왔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요인은 교인 감소가 37.9%, 고령화가 35.4%, 열악한 교회 재정이 13.5%의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고령화는 곧 교인 감소로 이어지기

에 심각할 수밖에 없지요.

한석봉 먼저 우리 교회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2003년 부임 당시, 교회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임했고 성도들조차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체감되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 농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농사가 지역주민과 소통의 창구가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더불어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저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단연 주민들의 고령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30대 후반에 와서 현재 60대가 되었으니까 같이 늙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는 교회에 아이들이 30여 명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부분 외지로 나갔고, 그 세대 이후 마을에는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김반석 교회가 단순히 전통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이 가능하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석봉 우리 지역에는 충주, 제천, 음성 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봅니다. 대부분 교회에는 초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수 대형 교회들만 젊은 층이 유입되는데, 이 교회들은 자연히 문제의식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도시 교회들 대부분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 내의 2-3개 교회만이 겨우 교회 내 각 기관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때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모판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판인 농촌교회가 인구의 절대



천안 광덕교회 전경

적 감소와 초고령화, 탈 농촌의 가속화 속에서 줄어드는다면, 결국은 도시교회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가히 예측기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동량면, 금가면 면 내에 있는 농촌교회들 거의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말라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6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두 개의 면내에 이 정도 성도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2개뿐입니다.

김반석 지자체 혹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사례에 대해서도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운 저는 충남 보령의 시온교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들꽃축제가 있었는데요. 마을 집마다 화분에 키우는 꽃이 예뻐서 한군데 모아 함께 감상하자고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집을 다녀보니 꽃들이 개성이 있고 전체를

헤아리니 제법 꽃의 개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머문 언덕배기 교회 마당에 마을 화분을 모으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요. 뜻밖에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2007년에 700여 명 넘게 오면서부터 교회 공간이 부족해서 이원갑 장로님이라는 분께서 축산을 하다가 그만두고 약 11,000여 평의 폐 농장 부지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령시 공모 사업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공모했는데요. 보령시에서 신청서를 낸 20개 마을 가운데 5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2008년에 2위로 선정됐고, 2009년에는 1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모를 거쳐서 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수목원으로 모습을 바꾸고,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축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는 보령시 지역축제로 선정되면서 지역축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축제 때마다 1,3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신축리 수목원을 찾았고, 주변 4개 마을은 축제를 통해 도농 교류도 할 수 있었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석봉 이 문제는 각 농촌교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목회적 상황이나 마을 상황이 너무 열악하였고 환경도 농촌이었기에 농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기농업이라는 당시에는 생소한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그것은 생계수단으로도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그런 행동이 마을 주민에게 신선한 행동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즉 목사가 농사를 한다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기에 주민들의 눈에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면 농촌상담소장의 눈에 띄게 되었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가 농사였습니다. 그 후로 충주시 뽕나무 작목반 반장을 5년 정도 하면

서 전국의 마을을 견학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겼고, 그 덕분에 2007-2009년까지 ‘건강장수마을’을 유치해 당시 1억 5천만 원으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은 신촌성결교회와 도농 교류를 통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역이 알려지면서 교단을 초월하여 많은 교회들이 7-8월 동안 우리 동네를 찾아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마을의 부러움을 샀고 교회를 다니려면 전원교회를 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2007년에는 제가 속한 성결교단의 지원으로 트랙터를 구입해서 마을 어르신들 15명 정도의 밭과 논을 갈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스스로 교회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트랙터를 더 큰 것으로 바꾸어서 겨울철 마을의 제설작업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교회가 여름에 찾아와서 농사는 물론이고, 마을의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따기, 참깨 수확. 어르신들의 집을 수리해 드리는 러브하우스. 또 6월에 오는 단체들은 감자 수확, 독거노인들 반찬 봉사, 이 미용 봉사, 의료 봉사 등을 하고, 겨울철에 오는 단체들은 영양제 봉사 등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마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도 마침내 부흥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던 2003년에 출석 성도가 9명이던 교회가 2016년에는 마침내 101명이나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반석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촌·구도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전체 한국

교회가 함께 동역하거나 힘을 보태고, 붙들어야 할 신학적·목회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먼저 교단 총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교회는 도시교회 못자리다”라고 강조만 하지 말고 총회와 도시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교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길에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도시교회나 총회가 지방의 교회나 노회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인 강단 교류, 농산물 유통구조, 장학금 지원, 성경학교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길을 찾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농어촌은 식량 안보, 기후위기, 환경정화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선두자입니다. 농민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직불금 등으로 지원하지만 그 액수가 매우 적기에 생활 안정에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사만으로 경제성이 없기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원해 최소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뜻을 두고 귀농하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이 안정되면 교회도 함께 안정될 것이며 귀농자들과 아이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의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원리로 삼을 때, 우리는 이웃들, 동족뿐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자, 나그네와 외국인 등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유무상통 공동체를 잘 말해 줍니다.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의 일부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 공동체에 회사하였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니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방의 농촌교회를 경제의 논리만으로 보지 말고 생명 보존, 생명 살림의 가치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기후위기, 환경 파괴 등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생명의 보고인 농어촌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이

사야 선지자의 외침대로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농어촌 인구가 늘어나고 교회 주일학교도 살아나고, 찬양대도 살아나고, 영아, 유아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늘어나 이리저리 심방 하기에 바쁘고, 장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주례도 하고 백일, 돌잔치에 가서 축복 기도해주는 꿈,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 소중한 꿈을 말입니다.

한석봉 제 생각에 아마 인구 소멸의 상황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고, 결혼을 꺼리는 상황에서 불 보듯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교회는 존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지만, 교회는 존속해야 합니다. 인구가 전혀 없다면 모를까.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곳에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합니다. 오지를 찾아가고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국 농어촌, 산촌교회는 어떨까요? 다시 말하자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교회, 농촌 목회자들을 그 상황에 맞게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농사의 전문지식과 신학, 또는 사회복지와 농촌목회 등과 같이 현장 맞춤형의 전문적 농촌 목회자들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농촌으로 가는 목회자들 스스로도 이념과 사상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농사를 짓는 들판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 농촌, 즉 흙으로 보내셨는지를 성찰하면서 이른바 ‘농촌목회신학’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목회는 더 행복해졌고, 오직 감사쁨임을 깨달았습니다.

FAITH & LIFE

기독교 세계관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기독교학문연구회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



살롬! 저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학술부학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결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진학하여 신학을 배웠습니다. 후에는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종교철학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2009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에 관해 알게 되었고, 학회에 참석하여 함께 섬기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웃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 영국의 상황에서 일생 동안 가르치고 실천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화의 길', '사회적 성결'의 강조점들을 가르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이것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소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 많은 교회가 개인의 영적 구원과 개교회주의적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은 분명 주님 보시기에 아쉬운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교회의 이러한 상황에는 청의구원의 복음에 치우친 신학교육을 해온 교수들의 책임이 있다는 작은 깨달음과 반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건의하여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학부와 신학대학원에 개설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 성회구원을 공부하거나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준비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는 수업시간에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관을 설명하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는 신학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

하다)라는 교재를 집필하여 부족하나마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학연'에 참석하면서 저는 '기학연'을 섬기는 작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들의 세션의 좌장으로, 『신앙과 학문』의 편집위원으로 섬기게 되었고, "한국사회 양극화"를 주제로 다루었던 2022년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주제 발제를 맡아서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이 논문을 <신앙과 학문>에 실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연구에 헌신해오신 선배와 동료 학자들과 교제하게 된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적 학문을 추구하면서 여러 일반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적용하여 연구하시고 글을 쓰시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을 알게된 것도 큰 소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학연'이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적어보면, 첫째로, 모든 학문 영역에서 복음적 관점과 소명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더욱 확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수님들의 기도회 모임 등 신앙적 교제도 중요하지만, 세속적이고 자연주의적인 학문의 관점이 당연시되는 우리 시대에 기독교적 학문의 영역을 심화시키고 넓혀가는 노력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기학연'이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연구하는 장이 되고, 또한 기독교 세계관 연구자들의 교류의 마당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연구나 학회와 같은 활발한 교류의 장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학연'은 기독교 세계관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학자들의 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학문 영역은 전통적 학제가 아니기에 학문적 기반이 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변화와 방향을 평가하여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의 인식과 실천을 도와주는 실천적 학문인 기독교 세계관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근에 읽었던 유럽의 종교개혁의 역사에 관한 몇몇 책들을 떠올려 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에서 칭의구원을 발견한 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중세교회의 율법주의와 도덕적 타락과 목숨 걸고 맞서 싸운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황제와 제후 중심의 중세 봉건사회의 모순을 보지 못했고, 노예와 같이 고통받는 농민들의 고난을 직시하지 못했으며, 사회변혁의 외침들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한계를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에 헌신되었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까요?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칭의구원을 확신하였지만 성화구원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할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를 이렇게 표현하자니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만, 루터의 후예로,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그러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기학연'은 복음주의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온전한 복음, 세상을 섬기고 변혁하는 복음을 지향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좋은 허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학부(B.A)와 신학대학원(M.Div.)을 거쳐, 미국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MATS, M.A., Ph.D.)에서 철학적 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 <21세기를 움직이는 신학포인트>, <구원의 허리를 동이고>, <과정 속에 있는 성령신학>,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성령론>(공저) 등이 있다.

가장 뜨겁게 살아 숨 쉬는, 그런 운동력

홍철민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학부생)



대학을 위해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비로소 이 땅의 미래를 숙고할 여유가 생겼다. 그러한 사색 가운데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이었다. 작년 이맘때 즈음, 친구와 함께 찾은 대전 여행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울만을 한국의 전부라 여기던 나에게, 밤 10시가 넘자 불빛을 잃어버린 도시의 풍경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충격이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24시간 PC방과 편의점조차 문을 닫은 모습 속에서, 나는 지역이 겪고 있는 현실을 몸으로 느꼈다. 광역시조차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맞닥뜨린 위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결국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야 할 땅이기에, 그 위기의식은 더욱 절실했다.

실제로 각종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오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게 기술력과 인재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위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우선, 닥친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말씀은 삶의 시금석이기에,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한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다. 낯선 땅,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은 분명 소망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도리어 주어진 자원과 기회를 선용할 동기와 지혜가 생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같으시기에, 말씀의 적용점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심지어는 세속의 제도와 질서까지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진실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듯이, 혹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누리리라 믿는다.

그러나 태도는 진정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태도라 불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교회 공동체와 떼어놓을 수 없다. 온전한 세상을 홀로 이루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구태여 인간에게 창조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다.(시편 8:4-6).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불린 까닭이다. (마 5:13~16)

나아가, 마태복음 25장에 서술된 달란트 비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더 남겼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기뻐하였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고 그를 쫓아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하는가? 바로 생명이야. 생명은 무릇 살아 숨 쉬고, 생명을 낳을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숨이 붙어있더라도 그것은 죽은 생명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교회는 이 생명을 움켜쥔 공동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나 자신도 섬김의 자리에서 이를 절실히 느낀다. 양평동 교회에서 소년부 교사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중앙대학교 CCC의 대표 순장으로 1년간 사역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섬김의 자리가 다양해질수록 더욱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 행위와 기준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줄어드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 축소되는 선교 단체의 모습 등 내가 속한 모집단이 모두 줄어드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운동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은 단지 행정적·인구학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해체라는 영적 위기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교인이, 그리고 특히 청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명확하다. 세상 속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로 서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였듯이(예 29:7),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살아냈듯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후 5:18) 그리할 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실제적인 섬김 속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도리어 그렇기에 그 소망을 품은 자답게 이 땅에서 맡겨진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

진실로 교회가 존재하는 곳마다 죽어가던 땅이 살아나고, 흩어지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며, 무너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그 일의 한가운데에 우리 청년 세대가 서 있기를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홍철민**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앙대학교 CCC의 대표 순장, 서울 양평동교회에서 소년부 교사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예술

김태훈 (작가 /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조소 전공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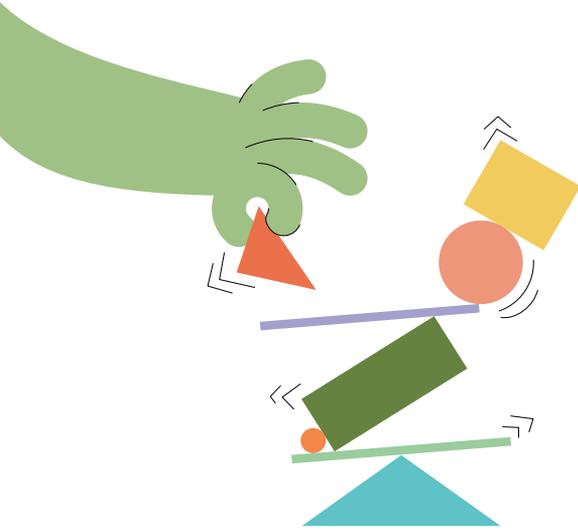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조소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는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술학과 조소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 예술가이다. 학부와 석사과정을 거쳐 조형예술을 연구해 왔고, 동시에 작가로서 전시와 공모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활발한 활동 이면의 배경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예술만을 전적으로 붙들기가 어려웠고, 경제적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내 곁을 맴돌았다. 감사 지원에서 떨어지거나 전시 공모가 연달아 불발될 때면 “과연 내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술가로서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라는 은혜를 받아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살아오면서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 교회를 가지 않았고,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러한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셨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 내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길을 내시고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예술을 지속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때로는 작업을 하는 시간보다 작업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시간, 재료를 계산하는 시간, 더 저렴한 재료와 방식을 찾아보는 시간이 더 많이 들었다. 재료를 감당하지 못해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기도 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학비가 없어서 진학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순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는 순간에 개인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없던 차에 대관 공모에 당선되었고, 작업을 위한 비용이 마련되지 않는 순간에 작품이 판매되거나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작업을 멈추게 되는 순간에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 새



로운 영감을 얻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도움, 때맞추어 주어진 기회, 작은 성과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걸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나는 현재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매체이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을 붙잡아 기록하는 사진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빛과 그림자, 시간과 공간, 작은 사물과 사람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촬영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이미지를 얻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경외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찍은 사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오리고, 잘라내고, 다시 조각하여 새로운 화면이나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든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른 각도

로 경험하게 된다.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고, 지나치던 장면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기도 한다. 보는 사람 또한 내 작업을 통해 창조세계를 다층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 깊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내 작업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시도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하는 작은 통로라고 믿는다. 나에게 예술은 자기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길이다.

나는 여전히 흔들린다. 미래가 두렵고, 생활은 빠듯하며, 예술가로서의 인정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내가 계속해서 예술가의 삶을 붙잡아야 할 이유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흔들리면서도, 믿음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려 한다. 내 삶과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훈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조소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을 학부에서 복수전공 했고, 조소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작가로서도 전시와 공모를 비롯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광동교회 청년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변지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신 분이라 믿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 내 신앙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든 것이다.

불평등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게 된 나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 사회학을 공부하며 세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계속 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가?”라는 의문은 점차 커져갔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후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며 학업에 몰두하였고, 당시 가장 관심 있던 주제인 아동 불평등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지만 이상하게 공부도 일상생활도 즐겁지가 않았다. “과연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세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감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다는 마음에 모태 신앙의 회귀 본능 때문인지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

했지만, 진정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채로 그저 좋은 말씀을 듣는, 자기계발을 위한 종교 생활을 이어갔다.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 없는 광야를 걷는 공허함 뿐인 시간이었다.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망에 아동복지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입사했다. 내가 오랜 시간 책상 앞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가장 먼저 겸손을 배웠다. “그래도 나는 석사까지 했으니, 일도 잘하고 유능할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교만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업무적으로도 유능한 동료들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일하면서 마주한 현실은 내가 글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또한 정말 신기하게도,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고통의 사례들을 직접 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점점 더 사라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었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일을 하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저 고민과 질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점이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해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써 더 이상 그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일하며 나는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들을 위한 복지에 큰 관심이 생겼다. 또한 그 당시 외할머니께서 치매와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온 가족이 간병에 힘쓰며 겪은 여러 경험들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그저 머리로만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과 제도를 직접 연구하고 싶다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싹텄다.

그렇게 나는 사회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전공을 바꿔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 사회학 석사과정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공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실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연구의 필요성 덕분인지, 이전과는 달리 모든 개념과 이론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 이전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바로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밟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소중한 깨달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며, 결국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함이었음을 깨닫는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기에 아직도 가끔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굳게 믿으며 기도한다. 학위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임을 되새긴다. 나에게 이렇게 공활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회복지라는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사회복지 연구를 하며, 그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변지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영국 Warwick 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Oxford 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아동복지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6년 동안 아동권리 정책 개선 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 양재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다.

격변의 시대, 교회가 희망이다!!

- <울지마, 톤즈> (구수환 감독, 2010, 다큐멘터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전 안양대 교수)

지방소멸? 속도의 후유증!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속도”를 절감하게 한다.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Age of Speed)라고 부른지 반세기가 지나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도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속도 전쟁에 깊숙이 들어왔다. 속도는 어린이 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있다. 이미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별명 하나가 알려져 있었으니 “빨리, 빨리!”였다.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으레 이 “빨리, 빨리”가 따라다녔다. 여행지에 가면 외국인 관광 가이드가 외친다. “빨리, 빨리!” 속도전에 익숙한 한국식 관습 때문에 경제적 발전도 급속하게 이뤄낸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세계가 놀랄 정도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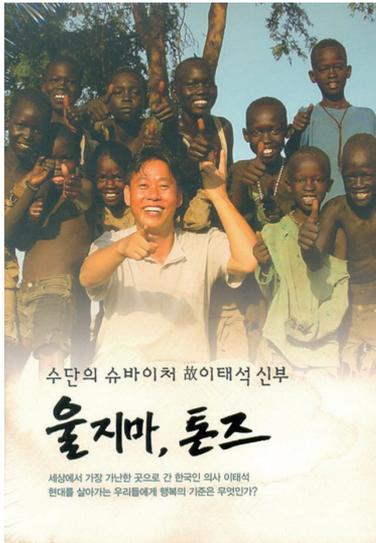
그러나 여기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속도의 습관이 무의식적 욕망이 되어 결국 현재와 같이 여러 후유증을 보게 한다. 어쩌면 한국인 자신이 속도전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지방소멸이라는 주제와 연관해 보자면, 우리가 그토록 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성취욕이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한 주원인이 되었다 하겠다. 학교에서 이미 습관화된 경쟁의 속도, 사회에 나와 성공을 위하여 치열하게, 처절하게 뛰지 않으면 안 되는 무한경쟁의 속도! 이런 속도가 급기야 역기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균형이 서서히 깨져가는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방소멸 현상이다. 이는 속도로 인하여 생긴 청년층 N포 현상,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진입, 도시 집중 등이 만들어낸 종합세트이다.

본회퍼의 ‘세상 속 교회론’

본회퍼(D.Bonhoeffer, 1906~1945) 목사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성도의 교제>에 “교회 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라는 부제를 붙인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문화신학 등등 연구할 주제도 넘치건만, 사회학적 관점이 왜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역할,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회와 사회학을 연결하자면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사회 안에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인격적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본회퍼가 직관한 현대 교회의 결핍은 바로 이런 요소였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현존, 즉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신실한 신앙적 행위로 살아가는 “너와 나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보았다. 교회는 이익집단이어서는 안되고,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도 안 되고, 더구나 권력 집단이어서는 안된다.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

교회는 신비하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면서 또 개인으로도 존재한다. 교회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도 표현될 수 있기에 ‘그 한 명’은 참으로 귀중하다. <울지마 톤즈>는 소중한 귀중한 한 명의 신앙인을 보여준다. 이태석 신부(1962~2010)가 주인공이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의사의 삶



〈울지마, 톤즈〉(구수환 감독, 2010, 다큐멘터리)

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자 신부가 된다. 그리고 멀리 남 수단 톤즈로 부름을 받는다. 그곳에서 내전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다. 병원이 없어 의료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고, 위생, 간호 개념도 알지 못하는 곳, 학교와 교육도 뒷전 이었던 곳 톤즈, 하루하루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 톤즈. 한센씨 병으로 몸이 무너져내리는 환자촌에 들어가 그들을 품에 안고 치료하는 사랑. 그는 예수의 심장으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다. 그러는 가운데 문득 암이 발견되나 이미 깊어진 상태. 주님께서는 서둘러 그를 자신 곁으로 부르셨다.

‘지방소멸’ 앞의 교회?

‘지방소멸’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왜 〈울지마 톤즈〉인가? 이 이야기가 무슨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안으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면 희망이 보인다. 속도와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예수 사랑으로 성숙한 인격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땅끝”까지 가

야 한다면, 소멸되어가는 지역도 땅끝이 되리라. 그 땅 끝으로 가는 교회, 그 교회에 헌신한 ‘한 사람’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한다면 격변의 시대에 적합한 방안들이 찾아질 것이다.

이태석 신부의 삶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버려진 땅과 같은 광야를 새롭게 하였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사 35:7). 한 사람의 헌신이 톤즈를 회생시키고 희망을 밝힌 사연은 예언에 약속된 작은 부분이지만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격변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면 환경을 초월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톤즈의 현지인들처럼 위기 속에서도 예수의 발자취를 좇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길이 열리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교회끼리,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당신들의 천국〉에서 살지 말고, 벽을 허물고 담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포용하며 울부짖는 마음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치열하고도 철저하게, 장엄하고도 고귀하게 예수 생명을 살아내야 한다. 교회 개혁은 구호에 있지 않다. 교회 개혁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행동에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목사로 문화선교 분야에 섬기고 있다. 중동고, 단국대(국문과)를 졸업한 후, 독일 뮌헨대(M.A. 기독교문예학), 아우구스부르크대(Dr.phil. 기독교문예학/신학)에서 수학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기독교문예학, 인문학, 문화연구 등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통합연구이며,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에서 교수로 섬기다 정년퇴직하였다. 대표저서로 〈권력과 신앙: 히틀러정권과 기독교〉 〈독일 국가사회주의(나치즘) 개관〉, 그외 문화관련 다수의 책이 있으며, 다양한 강연, 글쓰기, 말씀 선포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 있다.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빛나다’ - 문화구조대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아트미션(회장 양지희)의 제27회 정기전이 서울 ‘답십리 아트랩’에서 개최되었다. 참여 작가들은 널찍한 공간에 설치, 회화, 콜라주, 오브제, 렌티큘러, 프린트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아트미션 작가들은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의 <문화와 일반 은총>을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책의 부제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빛난다’(He Shines in all That's Fair)를 전시 주제로 삼기로 했다. 마우는 문화를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파악했는데 ‘은혜는 어느 곳에든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일반 은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일상에서 느껴보는 일이기도 하다.

주위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현대인들은 이 표현이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즐거움이 눈 덮인 살얼음처럼 존재의 불안을 가릴 수는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흥미롭게도 현대인은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삶이 실제로는 깊은 시름과 정신적 기근 속에 침윤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로 부르는 문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롭게 가상공간을 통해 이동한다. 현실에 발붙이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경험이 멸종된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 체험은 놀라운 효율성과 화려함으로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엄매이게 되고 우리를 고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뿌리 의식도 갖지 못하게 된다.



2025년 아트미션 오픈 장면

오래된 공동체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에게 이동의 대가가 크다.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환경에서 분리되어 버린 데서 오는 상실감도 상당하다. 그것은 뿌리를 잃은 데서 오는 것, 건강한 형태의 소속감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데서 오는 허전함 같은 것이다. 북적이는 도시는 장대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그 과정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끊임없는 발전이 공동체의 구조를 파괴할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이퍼 커넥트되어 있지만 동시에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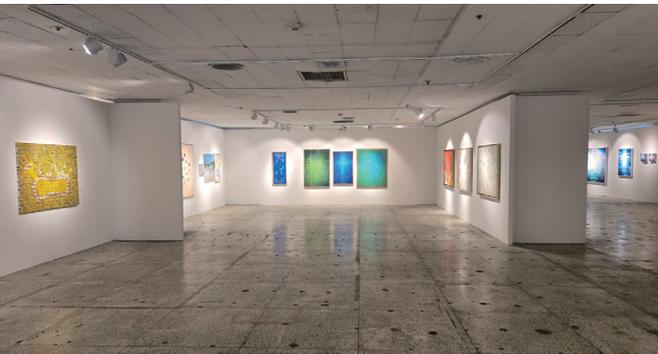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 빛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는 뿌리를 상실한 도시인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의미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그 대상은 집, 골목, 거리, 공원일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트미션 작가들은 이것을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새삼 강조되어야 할 주제로 인식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동하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곧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며 참여 작가들은 그런 소망을 작품 속에 담고자 했다.

그러나 모두가 전시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출품한 것은 아니다. 신앙의 고백, 영적 추구, 경건 생활 등은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문화적 코드이지만 사회적으로 소통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문화를 ‘경작하고 돌보는’ 섬김의 역할이 주어졌음을 상기할 때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롬 8:22)한다면 ‘문화적 구속’은 더더욱 절실한 현안이 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선을 추구할 때 세상과의 장벽은 무너지고 이웃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고립은 세상과의 단절을 낳을 뿐이다.

아트미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해 왔다. ‘함께 하는 마음’(2017), ‘보듬어 주는 시선’(2019), ‘동행’(2020), ‘다정한 이웃’(2022), ‘공홀’(2023), ‘그 땅에 짝을 띄울 때까지’(2024) 등. 기존 미술 단체가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교류와 선교에 중점을 둔다면 아트미션은 전인적 신앙을 추구하며 공동체 속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집중해 왔다. 문화의 특성상 그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화 사역을 이어나간다면 언젠가 결실의 그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시 마지막 날에는 ‘기독교 예술과 공동체의 회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신국원 교수님과 최태연 교수님, 그리고 필자가 발제자로 나서 우리 사회의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학술대회는 많은 예술가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FAITH & LIFE



답십리 아트랩에서 개최된 2025년 아트미션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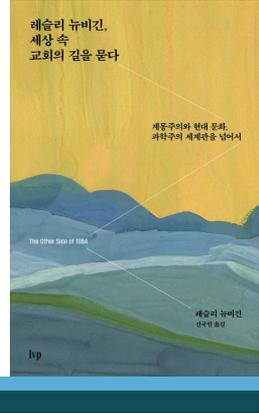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레슬리 뉴비긴이 오늘 우리에게 쓴 서신서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레슬리 뉴비긴, 세상 속 교회의 길을 묻다〉 / 레슬리 뉴비긴 / 신국원 옮김 / IVP / 2025

이 책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1909~1998)이 1984년에 열릴 회의를 염두에 두고 1981년에 시작한 연구 과정의 일부로 저술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떠올리면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질문하고자 했다. 이 책은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희망을 상실한 문화’에서는 인도 선교사였던 뉴비긴이 인도에서 영국으로 옮겼을 때, ‘희망의 상실’을 말한다. 과학과 기술은 희망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느껴진다고 한다. 동구권의 마르크스주의와 서구권의 자본주의는 계몽주의에 연원을 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라는 암울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2장 ‘현대 문화의 근원들’에서, 뉴비긴은 18세기 계몽주의를 서구 문화의 가장 근접한 원천이고, 18세기 중반에 유럽이 도달한 전환점을 계몽주의로 설명한다. 의무에 기초한 사회가 권리에 기초한 사회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설명의 상대성 때문에 ‘계몽주의’의 틀을 비

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한다. 자연이 ‘신’을 대체했고, 자연의 원리를 터득한 과학자는 인간과 새로운 신을 중재할 수 있는 사제가 되었고, 민족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18세기 철학자들이 옹호했던 ‘인권’은 주로 신흥 부르주아들의 권리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유는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3장 ‘새로운 틀’에서 뉴비긴은 과학은 18세기의 꿈을 뛰어넘는 개가를 올렸지만, 이전 세기들보다 세상이 더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뉴비긴은 교회가 우리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초청받는 이해 방식은 하나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였으며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 증언된 이해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이 사적이고 가정적인 삶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적 생활에서도 감당해야 할 실천적 임무들을 대처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4장 ‘세 가지 질문’에서, 뉴비긴은 우리가 처한 ‘현대’의 세계사적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틀은 ‘현대’ 문화에 대한 진정한 선교적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1) 교리의 적절한 역할 보존에 대해, 뉴비긴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화로서 유럽 교회들이 계몽주의 때 형성된 잘못된 혼합주의 속에서 경험한 문화와의 대화를 제시한다.

(2) 뉴비긴은 ‘콘스탄티누스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성경의 비전을 제시한다. 성경의 비전은 모든 사람의 공적 삶과 사적 삶 모두를 아우르는 완성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이분법이 없어야 하고, 교회는 종교 동호회가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고 설명한다. 교회는 공적 역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

(3) 뉴비긴은 정치에 기독교적 절대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재앙이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 정의와 자유를 분별하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을 위한 행동에 헌신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의무를 설명한다. 뉴비긴은 공적 의무에 대한 상호 설득과 교정의 지속적 노력은 교회 삶의 필연적 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믿음·개방성·순종의 맥락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5장 ‘탐구로의 초대’에서, 뉴비긴은 교회들이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대 세계의 특징인 ‘기대의 혁명’은 환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실망할 운명이 아닌지 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2025년 오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에 환호하는 현실도 질문해야 한다. ‘서로 관계됨’의 소중함을 설명한다. 뉴비긴은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오늘의 문화에서 사람들 사이의 참된 관계는 “서로의 종이 되라”라는 구절(막 10:44; 갈 5:13; 엡 5:21)로 표현된다고 한다.

결론에서 뉴비긴은 자신이 주장한 것이 아우구스티누스(534~430)가 직면했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뉴비긴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범을 따라 예수의 사역에 기반을 둔 이행의 틀을 우리의 죽어가는 문화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뉴비긴은 이 책에서 철학, 역사, 사회, 문화, 법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을 보여준다. 뉴비긴은 성경의 관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하고, 시대를 초월한 질문에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한다. 웨슬리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h)의 후기로 뉴비긴이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 마지막에서 신국원 교수는 뉴비긴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력 있는 질문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이 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고세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미국 버지니아대, 툴레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툴레인대에서 법학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M.Div)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전산성교회 영어예배 팀장, 충남대학교 기독교수회 기획이사과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부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궁금한 당신에게

석중준 (서울대학교 캠퍼스 선교사)



〈하나님이 궁금한 당신에게〉 / 이호수 / 토기장이 / 2025

〈하나님이 궁금한 당신에게〉의 저자 이호수 박사는 1980년대 중반 AI(인공지능)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 IBM 왓슨연구소(1985~2005), 삼성전자 부사장(2005~2014), SK 텔리콤 사장(2015~2018)을 거친 AI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신앙 도서 〈하나님이 궁금한 당신에게〉을 발간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자신이 경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12개 주제의 짧지만 매우 명료한 글들이 실려 있다.

우선 저자는 개인적으로 IBM 연구소 시절,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작동하는 뇌와 심장을 포함하여 엄청나게 복잡한 신체 장기는 누가 작동시키는가?”(14면)라는 의문이 하나님을 찾는 출발점이었다고 한다. 그가 찾은 답은 이랬다. “아기는 그 부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가’ 만들어주기 때문이다.”(20면). 또 그는 여기서 ‘누구’라는 실체를 성경에서 명료하게 찾았다. 즉 하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요 1:3-4).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이기에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24면). 저자는 C.S. 루이스와 팀 켈러처럼 특별히 ‘도덕적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를 원한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숨 쉬는 공기 한 줌 같은 삶 모든 곳에 스며 있다.(33면).

또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 이 죄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도 죄를 들었으며, 고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다.(35-36면). 결국 인간은 각자 자신이 만든 다양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즉, 물질주의, 개인주의, 정보기술 등의 우상화이다.(45면).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일그러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

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47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대책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의 흥미로운 은유가 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적 피뢰침에 비유한 것이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피뢰침이다..... 하늘에서 수만볼트의 전기가 땅으로 내려와 높이 세워져 있는 물체에 떨어진다. 이때 벼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높은 곳에 설치된 피뢰침이다.”(51면)

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57면) 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침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59면).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다.(히 11:1).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경구 “이해하기 위해 믿으라”(Credo ut intelligas)를 소개한다.(82면). 또 저자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먹고 자란다고 본다. 즉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연약함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점차 깊어지고 견고해진다.(84면).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엡 2:8). 그러나 저자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즉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다.(88면).

여타의 종교들이 믿음이라는 선물에 기초한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기독교와 달리 그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 신을 찾고, 그 신을 찾기 위해 수행하는 의식체계라는 것이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의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93-94면). 필자가 특별히 이 책에서 주목한 저자의 신선한 통찰은 하나님을 영적 ‘자이로스코프’, 인생의 ‘조율사’, 불링에서의 ‘킥핀’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비유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로켓의 균형을 유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상승하도록 돕는 자이로스코프이다. 또 우리 인생이 불협화음을 낼 때, 악기를 조율하듯 우리 삶을 세밀하게 조율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링에서 스트라이크를 하려면 반드시 킥핀인 5번 핀을 맞추어야 하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킥핀이 되신다.(97-98면).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 글은 내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110면)라고 밝힌다. 즉 이 책의 글들은 저자의 논리적 추론이나 도서관의 책들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저자가 삶의 자리에서 길어낸 살아있는 글들이다, 그래서 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부디 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종교철학, Ph.D), 서울대학교교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기독교생 북클럽 지도목사, 서울대 기대모(기독교대학원생모임) 지도목사,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 학교, 지역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

경남 '창원성산교회'는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이하 '기세관')의 틀에 입각해 교회, 교회 내 대안학교인 '창원어깨동무학교', 그리고 창원지역 사회 속에서 지속적 신앙의 성장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든 성도를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보고, 다음 세대를 '어린 다음 세대'로, 어르신들을 '어르신 다음 세대'로 명명하여 모두 함께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갖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 가정에서 시작된 홈스쿨링에 마음과 비전을 함께 하는 가정들이 더해져 '코업'(Co-operative Education)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 모임이 '창원어깨동무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발전되어서 '기세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길 원하는 부모들은 CTC(유경상 교수)의 '기세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훈련을 받게 하였다. 교사들이 한 마음, 한 목표를 지향했기에 자연스럽게 수업들은 '기세관'에 입각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한다. 아이들과 <나니아 연대기>, <천로역정>, <그리스 로마신화>를 읽으며 '기세관' 훈련을 심도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부모 세대를 깨우기 위한 '부모들을 위한 기세관 교육'은 '기세관'을 바탕으로 한 자녀교육의 방법들을 매월 학부모 모임을 통해 꾸준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창원어깨동무학교'는 현재 16가정의 23명의 아이들과 7명의 교사들이 모여 건강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하는 중이다. 올해는 특별히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넘어가기 전 1년간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을 통해 세상 속에서 '기세관'에 입각한 통찰을 키우며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특히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하이세'(CTC) 모임에 함께 하여 '기세관'의 관점으로 독서와 토론도 병행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1년간 자신이 배운 '기세관' 공부가 지성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훈련들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부임 초기부터 시도한 문화센터 사역으로 지역과 소통을 시작하여 교회의 문턱을 좀 더 쉽게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어르신들을 위한 수요무료급식 봉사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교회 밖의 식당을 임대해 급식 제공을 멈추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다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료급식에서 평균 130~40여명의 어르신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사역은 어깨동무학교의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의 세상 섬김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도 함께 열려져 있다.

교회 1층에 있던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기부카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구제를 감당하였고, 2023년부터 무료카페로 전환해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음료를 통해 하루 평균 120~1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음료를 마시며 머물다 가곤 한다. 때로 카페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그룹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부모 세계관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승철

창원성산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한세대를 졸업했고 충신대에서 석사(Th.M)와 박사(Th.D 목회상담학) 학위를 받고, 현재는 대신대에서 신학과 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창원성산교회 기독교세계관교육 섬김이 소감문

창원 어깨동무학교 교사로 섬기며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창원어깨동무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입학을 문의하려고 처음 찾아뵈신 이후로 거의 8개월 만의 연락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대뜸, 어깨동무학교의 교사로 들어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다. 그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예상외로 빨랐다. “네.” 그렇게 나는 덜컥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가 되었다.

전공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지만, 교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웠다. 감사하게도, 내가 맡은 수업은 ‘기독교 세계관’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캠퍼스 현장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섬겼던 경험, 신대원 졸업 후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장교들을 교육했던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는 기회였다. 게다가 학교의 배려로, CTC 기독교 세계관 기본과정에 참여하여 꾸준히 공부하면서 기본기부터 다질 수 있었다. 배운만큼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은 나로 하여금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수업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신앙의 생활화를 훈련하는 데 집중했다.

중등학교 과정 친구들과의 기독교 세계관 수업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함께 읽고 신화 속 주제들을 찾아내어 성경의 렌즈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업마다 주제 글쓰기 과제도 내주었는데, 한 번은 ‘나의 영웅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였다. 학생들이 써온 내용을 읽고서 마음 한구석이 몽클했다. 이들의 영웅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힘 세고 비범한 주인공들이 아니었다. 약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소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아빠, 엄마, 목사님, 선생님... 중등학교 과정 친구들에게는 이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영웅이었다. 학생들의 글쓰기 과제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전해드렸더니 모두 감동을 받으셨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품는 연습. 기독교 세계관은 지식 쌓기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로 증명하기 위한 필수 훈련이다. 청소년 시절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고, 이들의 삶이 복음으로 덧입혀지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안태석

창원성산교회 어깨동무 교육공동체에서 중등과정 교사로 섬기고 있다.

헨드릭 반 리센의 기독교 세계관(1)¹

최용준 (한동대학교 시 융합학부 교수)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헨드릭 반 리센(Hendrik Van Riessen, 1911-2000)은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1837-1920)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경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는 델프트(Delft) 공대에서 공부하다 거기서 기독교 철학을 강의하던 볼렌호븐(D. H. Vollenhoven) 교수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² 그 후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여 1949년에 철학과 기술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³ 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술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 발전시킨 철학자로서 현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도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그는 칼뱅주의 철학협회에서 개설한 특별 석좌 교수로 임명되어 델프트 공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후 에인트호번 공대, 브레다(Breda)의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철학을 강의했으며 1963년 볼렌호븐이 은퇴하자 그를 이어 자유대학교에서 일반 조직 철학 및 문화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는 포프마(K. J. Popma), 자우데마(S. U. Zuidema) 및 메케스(J. P. A. Mekkes)와 함께 네덜란드 기독교 철학 2세대를 형성한 학자이다.⁴

반 리센은 그 후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술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7년 자유대학교 교수 취임 강연에서 그는 현대인의 무기력성을 분석하면서 서양 문화가 인간에게 학문과 기술을 통해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었으나 정작 인간은 폐쇄된 세계관으로 인해 세속화되어 오히려 허무감에 빠졌다고 주장한다.⁵ 나아가 이러한 세속화의 근원적인 뿌리는 그리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철학 및 학문관에 있는데, 이를 이어받아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문을 강조하던 계몽주의는 처음에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간에게 크나큰 권력을 주어 심지어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까지 선언했으나, 결국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인간의 소외를 낳게 되었고 인간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⁶ 1974년 델프트 공대 은퇴 강연에서는 기독교 철학이란 본질적으로 학문적 사고와 신앙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확신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고 주장했다.⁷

나아가 그는 1962년 8월 28-30일에 캐나다의 ‘개혁주의 학문 연구회’(The Association for Reformed Scientific Studies)에서 개최한 ‘유니온빌 스터디 컨퍼런스’(Unionville Study Conference)에서 ‘대학과 그 기초’(The University and its Basis)라는 주제로 세 번의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그는 학문과 신앙과의 관계 및 기독교 대학이 세속

1. 다음 호에 게재될 원고와 함께 본 원고는 필자의 논문 “학문과 신앙 그리고 기독교 대학: 헨드릭 반 리센의 사상을 중심으로”(《한국개혁신학》, 2013, 통권 39호, pp. 187-220)를 요약한 것이다.
 2. 볼렌호븐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는 최용준의 논문 “디르크 볼렌호븐의 생애와 사상”(《기독교 철학》, 2008, Nr. 6, pp. 105-131) 참조.
 3. Hendrik Van Riessen, *Filosofie en Techniek* (Kampen: J. H. Kok, 1949).
 4. <https://allofliferedeemed.co.uk/>
 5. Van Riessen, *Mondigheid en de machten*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7).
 6. Van Riessen, *Hoe is wetenschap mogelijk?* afscheidscollege Vrije Universiteit 1981, 5-6.
 7. Van Riessen, *Wat is filosoferen?*, afscheidscollege Technische Hogeschool Delft, Delftse Universitaire Pers. 1974.

화되는 이유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분명히 밝힌다. 이 강연은 그다음 해 온타리오 해밀턴에서 기독교적 관점 시리드로 출판되었으며 1997년 호주에서 다시 출판되었다.⁸ 또한, 네덜란드에서도 <미래의 사회>(De maatschappij der toekomst)라는 대표 저서를 출판했다.⁹ 본서에서 그는 학문에 기초한 조직이 지배적인 현대 사회의 구조가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권위와 자유의 균형 그리고 카이퍼가 강조한 영역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1981년에는 자유대학교 은퇴 기념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제 또한 ‘어떻게 학문이 가능한가?’였다. 여기서 그는 학문이야말로 근대 기술을 발전시킨 원동력인 동시에 20세기의 위기를 초래한 주원인으로 분석하고¹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문은 결코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아니라 철저히 신앙적 전제에 의존하며, 따라서 기독교 대학은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카이퍼가 품었던 비전대로 성경적 원리를 각 학문 분야에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기독교적 학문을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¹¹

반 리센은 학문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 또는 질서를 밝히는 이성적인 작업으로 보면서 학문의 발전 단계를 숲속을 거니는 산책에 비유한다. 즉, 숲에 대한 경이감에 이어 그 속에 나타난 다양한 법과 질서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¹² 그는 학문적 지식은 창조세계라는 숲속에 담긴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선택,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획득되며, 이러한 지식은 지속적인 비판적 반성 및 검증을 통해 재검토되므로 진정한 지식은 단지 사실들이 아니라 그 사실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며 이러한 지식이 체계화될 때 개별 학문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학문의 성립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는데, 법과 질서를 발견하면서 먼저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숲에 대한 경이와 감탄)와 분석적 요소(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태도)가 분리된 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지식 그리고 학문적 지식이 획득되며, 마지막으로 그 학문적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⁴ 이는 양상구조이론을 통해 학문적 혹은 이론적 사고를 분석했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의 선형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 리센이 단지 학문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방향성까지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FAITH & LIFE**

8. Van Riessen, *The University and its basis*.

9. Van Riessen, *De maatschappij der toekomst* (Franeker: T. Wever, 1973).

10. Van Riessen, *Hoe is wetenschap mogelijk?* 4.

11. Van Riessen, *Hoe is wetenschap mogelijk?* 23.

12. Van Riessen, *Wijsbegeerte* (Kampen: J. H. Kok, 1970), 80.

13. Van Riessen, *The University and its basis*, 48.

14. Van Riessen, *Wijsbegeerte*, 81-83.

15. 최용준,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2005), 37-66.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 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God & You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 제9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북 콘서트

지난 2025년 8월 8일(금) 저녁부터 9일(토) 낮까지 ‘제9회 기독교청년학생 북 콘서트’가 ‘God & You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후원으로 대전 카이스트 창의학습관(E 11 동 309호)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자는 현장 등록자 67명과 온라인(Zoom) 참여자 10여 명이였다. 오프닝 사회에서 석종준 목사(서울대 캠퍼스 선교사)는 행사가 자칫 공부하는 관성의 경직된 모임이 될 것을 경계하면서, “여기는 학술대회가 아니고, 만남과 교제가 일차적 목적이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 나눈 책은 <습관이 영성이다>(제임스 스미스)와 <하나님의 시그니처>(리 스트로벨)였다. 감사한 점은 이번 북 콘서트에도 응원하는 수많은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것이다. 특별히 35명의 원거리 참여자를 위해 숙소(계룡스파텔)를 마련해 주신 카이스트 북클럽 선배들과 이호수 박사, 8명의 홈스테이를 섬겨주신 가정들, 서울팀의 왕복 전세버스비를 후원해주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서울대 북클럽 출신 선배들, 학생들의 식사와 간식비 일체를 후원해주신 박동열 교수(서울대 불어교육과), 이영조 교수(서울대 통계학과), 박문식 교수(한남대 기계공학과), 최재윤 교수(카이스트 물리학과), 앰프와 무선 마이크 등을 제공한 카이스트교회 등 다양하고 세세한 후원의 손길이 있었다.

첫째 날(8/8 금, 저녁 7:30~10:40) 1부에서 윤현준 교수(숭실대 기계공학부)의 사회로 <습관이 영성이다>(제임스 스미스, 총 7장)을 가지고 4명의 학생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용과 발제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예배하는 인간’(정명현,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과정), 2장 ‘세속 예전을 읽는 법’(김수빈, 숭실대 기계공학부 학부생), 3장 ‘포스트모던 시대를 위한 역사적 예배’(장요한, 장신대 선교학 박사과정), 4장 ‘형성적 기독교 예배의 서사구조’(문연준,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브레이크타임에서는 간단한 환송식과 축복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주인공은 서울대 북클럽 출신으로 이번 북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유학을 떠나는 조예상 형제(위스콘신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였다. 이 형제는 서울대 북클럽과 카이스트 북클럽이 캠퍼스 별로만 가져오던 모임을 2021년부터 방학마다 한 번씩 연합 북 콘서트를 개최하도록 처음 제안했던 장본인이다.





첫째 날 2부에서는 김셋별 교수(홍콩대 교육심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5장 ‘가정의 예전’(박진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학부생), 6장 ‘신앙교육의 예전’(변지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7장 ‘소명의 예전’(남명현, 감신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의 순서로 발제가 진행되었고, 각 발제 후에는 뜨거운 자유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둘째 날(8/9 토, 오전 9:10~오후 12:40) 1부에서 홍성욱 박사(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카이스트 RACS 간사)의 사회로, <하나님의 시그니처>(리 스트로벨, 총 8장)의 발제와 조별 토론과 전체 자유토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 내용과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1장 ‘빅뱅 너머 진실: 우주 기원의 논리’(이지성,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2장 ‘생명을 위한 우주 설계도를 엿보다’(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3장 ‘생명 기원의 미스테리’(임태빈,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생), 4장 ‘부활의 최소한 증거들’(한기돈,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5장 ‘종교체험, 어떻게 신뢰하나?’(한설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 6장 ‘세계관 대별, 변증 피라미드’(우재석, 충남대 수학과 학부생), 7장 ‘고통 속에서도 소망하는 이유’(김건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8장 ‘하나님의 침묵과 씨름’(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브레이크타임 이후 진행된 2부는 임상희 박사(기초과학연구원 순수물리이론연구단)의 사회로 발제 내용 전체에 대한 조별 토론과 전체 자유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 나눈 책들은 모두 2025년 봄학기부터 ‘서울대 기독교학생북클럽’과 ‘카이스트 기독교학생북클럽’(RACS)이 각각의 정기 모임에서 이미 나눈 것이었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 나눈 책들은 모두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증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었다. 참가한 청년들 다수는 이번 북 콘서트 내용이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익했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이번 북 콘서트에 참가한 모든 청년이 개인적으로 내면화된 경건주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영성과 지성,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지 않는 인재로서, 이 시대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안, 축복의 통로, 가장 존귀하고 풍성하게 사용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육성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제2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안내

신청 : 2025년 8월 4일(월) ~ 2025년 8월 30일(토)
 제출 : 2025년 8월 16일(토) ~ 2025년 9월 12일(금)
 접수 방법 : 구글 참가신청서 작성 bit.ly/2025제2회독서대회
 독후감 제출 : 홈페이지 양식서 다운로드 후 제출 ☞ info@worldview.or.kr

- * 지정도서 : 1권 자율선택 후 독후감 제출
 - 중등부 - 1) 천로역정(존 번연) / CUP
 2) 사자와 마녀와 옷장 (C. S. 루이스) / 시공주니어
 - 고등부 - 1) 호빗(J. R. R. 톨킨) / 아르테
 2) 스크루테이프의 편지(C.S. 루이스) / 홍성사
- * 결과발표 및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시상식 : 2025. 10. 18. (토) 13:00,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제2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전읽기**

대상 : 기독교 신앙을 가진 중고등학생
 신청기간 : 2025. 8. 4(월) ~ 8. 30(토)
 제출기간 : 2025. 8. 16(토) ~ 9. 12(금)
 접수방법 : 구글 참가신청서(아래)의 링크(bit.ly/2025제2회독서대회)
 독후감제출 : 홈페이지 양식서 작성 | info@worldview.or.kr
 명 지 사 : 경기도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www.worldview.or.kr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지정도서 : 1권 자율선택 후 독후감 제출

중등부	천로역정 존 번연 CUP	사자와 마녀와 옷장 C.S. 루이스 시공주니어
고등부	호빗 J. R. R. 톨킨 아르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홍성사

시 상 식 : 2025. 10. 18(토)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13:00 (시 상 순서 있음)

부 문	중등부	고등부
대행(1명)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이희영(서울대)
학술부(2명)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주최(2명)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주최(2명)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주최(2명)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주 최 :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주 최 : 신앙학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 이희영(서울대)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안내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13시~18시 (대학원생 10시~12시)
 장소 :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주제 :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 복음화의 책임'
 1) 주제강연 :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IT학부 교수), 김상덕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
 2) 소장학자 발표 : 김태룡 연구원 (경희대 K-컬처, 스토리콘덴츠연구소)

동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0권 3호 (9월 30일 발간)

14편의 논문 투고되었으며, 심사 중에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충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생병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은퇴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실행위원회

-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행위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중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기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승기(별무리학교 교사),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홍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부총무 박지희(건국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승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충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원장)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VIEW 기독교 세계관 Certificate**: 1년 3과목 수강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적 묵상과 설교, 일터와 기독교 세계관: 개별 수강 가능). 한국에서 6월과 11월 집중 대면 수업과 줌으로 이루어진 과정 (view.edu/cert 참고)
- **VIEWtiful 인문학 과정**: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문학의 기초 역량을 줌 강의와 녹화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 (VIEWtiful.ca 참고)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 **청소년세계관캠프** : (사)청소년선교햇불(황성건 목사)과 공동 주관으로 “미디어 세상 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7월 28~30일(2박 3일), 부산 고신대 영도 캠퍼스에서 열렸다.
- **특강**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세계관 읽기라는 주제로 ‘월페이’ 방학 특강이 8월 20일 열렸다.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3기 신입생 모집(9월 입학)** : CTC의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 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5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9월 입학)**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5기 기독교세계관 감사과정’을 모집한다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9월 개강)** : 주제는 “기독교세계관”, 교재는 유경상, <크리스천 씹킹>(카리스)이다. 목표는 기독교세계관 원리를 배우고,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훈련하기이다.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9월 개강)** : “C.S. 루이스 읽기”로, 이번 학기는 <교통의 문제>를 공부한다.
- **강의** : 평택대 신학과 : <기독교와 현대과학>, <기독교 고전 읽기>, 평택대 기독교세계관 MTS(신학석사) : <기독교세계관과 다음세대 교육>, 아신대 :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 **<천로역정 가이드>** 릴랜드 라이큰 지음 | 오현미 옮김 | 184면.

“**고전은 시대를 넘어,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다!**”

(릴랜드 라이큰, 휘튼대학교의 영문학 교수)

<천로역정>을 분석하면서 주인공 해석, 신앙의 본질, 유혹의 현실성, 구원의 영광에 대한 통찰 등을 제공한다.

▶ **<연애학교>(개정 증보판)**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320면.

복음주의 영성 사역자이자 가정 사역자인 게리 토마스가 전하는 배우자 선택의 비결이다.

게리 토마스는 무엇보다 결혼하기 전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5년 6월, 2025년 7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6월	2025년 7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6월	2025년 7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20,000	1,12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800,000	62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060,000	4,075,000		소계	5,255,000	5,255,000
	기관후원금	3,250,000	3,2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웹진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36,575	488,359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49,793	119,710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7,760	11,448
	VIEW후원금	10,950,000	950,000		식비	139,200	219,600
	기타후원금	0	0		수선비	0	0
	월보구독료	305,000	280,000		복리후생비	501,860	501,860
	학술지원금	0	0		퇴직연금	439,230	439,23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예수금	445,920	445,920
	기타	215	20,000		회의비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32,723	125,634	
			소계	3,213,061	3,311,761		
기타수입	일반이자	5,924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0,811,420	931,42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0,871,145	991,14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95,75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37,79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469,810	476,470		소계	0	3,333,540
				기타	세금	0	0
			잡비		5,200	800	
소계	475,734	476,470	소계		5,200	8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310,000		세계관행사준비	700,000	0
					세계관기타	357,000	387,000
소계	0	310,000	소계		1,057,000	387,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40,000	14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18,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652,00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94,65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1,724,240
	학술지게재료	2,780,000	1,189,000		학술지발송비	0	148,07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1,010,00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조교비	0	0
	소계	2,920,000	1,347,000		소계	746,650	2,882,31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021,605	1,098,06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98,060	1,006,880
	전월 이니시스 입금	410,000	45,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45,000	60,000
	소계	1,431,605	1,143,060		소계	1,143,060	1,066,880
당월 수입액		24,872,554	13,601,530	당월 지출액		22,291,116	17,228,436
전월 이월액		13,449,849	16,031,287	차월 이월액 (잔액)		16,031,287	12,404,381

* CMS, 이니시스 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5년 6월)

5천 강대웅, 공승건, 박도명, 구성태,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삼욱, 김새별,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영,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석,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수아, 최원길,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성,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은재, 고철용, गु준호,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용,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호, 김중원, 김종일, 김종일,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화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하원, 모상근, 박아론, 박안, 박동현, 박명옥,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숙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란, 이요한, 이윤환,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연우,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태실, 한동민,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권, 홍구화, 홍중인, 황기철, 황도은,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기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강봉남, 강경진, 강보경, 강용식, 김인수, 김정옥, 김정일,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유재림,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해원, 4만 문석운, 우병훈, 4만5천 박성태,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석준준, 송종철, 안경상, 이해정, 임고은, 7만 사호행, 8만 김진규, 이신영, 10만 김지원, 김태황, 박영주, 손보호, 신국원, 신영순, 윤원철, 정수영, 12만 김민철, 김성현, 박문식, 최태연, 13만 이경락, 15만 최현일,

계 6,93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항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한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삼일교회, 1000만 주석회사 로프트아일랜드(VIEW후원),

계 13,250,000원

전체 20,185,000원

회원후원

(2025년 7월)

5천 강대웅, 공승건, 박도명, 구성태,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삼욱, 김새별,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영주, 김정영, 김정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석,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수아,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백예은, 손화정, 이은순, 전영성,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은재, 고철용, गु준호,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노동,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용,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인,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호, 김중원, 김종일, 김종일,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화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하원, 모상근, 박아론, 박안, 박동현, 박명옥,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숙엽,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란, 이요한, 이윤환,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연우,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한동민,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권, 홍구화, 홍중인, 황기철, 황도은,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혜숙, 1만5천 김사화, 김준원, 2만 강석분,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옥, 김경호, 김태진, 마민호,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유재림,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차봉준,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황정진, 황해원, 4만 김경모, 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강문규, 권정규, 노성대, 석준준, 손지혜, 송종철, 유고은, 임하은, 정우향, 10만 박영주, 손보호, 신국원, 신영순, 안병철, 윤원철, 이성현, 정수영, 12만 고기수, 김민철, 박문식, 최태연, 15만 최현일, 50만 박동열,

계 7,21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항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한돌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삼일교회,

계 3,250,000원

전체 10,465,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체계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승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홍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10월 1주

제2회 기독교 중고등학생 독서대회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전읽기

대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중고등학생
신청기간: 2025. 8. 4.(월) ~ 8. 30.(토)
제출기간: 2025. 8. 16.(토) ~ 9. 12.(금)
접수방법: 구글 참가신청서(QR코드) 작성(bit.ly/2025제2회독서대회)
독후감제출: 홈페이지 양식 다운 | e-mail 제출☞info@worldview.or.kr
양식: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커뮤니티-공지사항]
지정도서: 1권 자율선택 후 독후감 제출



중등부	천로역정 존 버니언 CUP
	사자와 마녀와 옷장 C.S. 루이스 시공주니어
고등부	호빗 J.R.R 톨킨 아르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흥성사

시 상 식: 2025.10.18.(토) 명지대학교 MCC관 10134호 코이노니아홀 13:00

< 시상 내역 >

부 분	중등부	고등부
대상(1명)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20만원	
최우수상(2명)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10만원(1명)	좋은교사운동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10만원(1명)
우수상(4명)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5만원(1명)	좋은교사운동 이사장상 도서상품권 5만원(1명)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상 도서상품권 5만원(1명)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상 도서상품권 5만원(1명)
장려상(8명)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상 도서상품권 3만원(4명)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상 도서상품권 3만원(4명)

(당선작은 '신앙과 삶' 저널에 기고예정)

주 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좋은교사운동 ·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주 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 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02.754.8004)

2025년 제42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The 42nd Annu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복음화의 책임

25. 10. 18(토)

13:00 - 18:00

10:00 - 12:00 대학원생 세션

장소

명지대학교 MCC관

10143호(코이노니아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개회식 및 시상식 13:00 - 13:30

사회 박지희 교수 건국대 융합혁신교육센터

주제강연 13:30 - 15:00

사회 이정훈 교수 명지대 공공인재학부

1. 자국 중심주의와 기독교적 공동체 이상: 갈등인가, 재해석인가?

강유덕 교수
한국외대 LT학부

2. 집단정서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와 기독교적 대응

김상덕 교수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패널토의

주제강연자 전원

• 신원규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 서동준 박사
한국성서대 성서학과

소장학자 토론 15:00 - 15:40

진행 및 토론 안승범 교수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3.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와 K-컬처 팬덤의 대항적 액티비즘

발제 김태룡 경희대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연구원

토론 신정아 백석예대 공연예술학부 극작과 초빙교수

일반주제 분과발표 16:00 - 17:50

● 경제·경영, 인문학, 교육학, 사회과학, 세계관, 보건·의료, 공연·예술, 학제간 연구

발표논문신청 안내

● **2025. 9. 18 (목)** 신청 및 요약본 마감

● **2025. 9. 30 (화)** 논문제출 마감

신청·참가 bit.ly/2025연차학술대회등록

● **논문제출** gihakyeon@gmail.com

● **홈페이지** worldview.or.kr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명지대학교 교목실

문의 02-3272-4967 / gihakyeon@gmail.com(학회)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새로남교회